

기본과제 2017-12

대구여성정책 풍향계

# 대구청년여성 실태와 시민 양성평등 의식 연구

연구책임 : 정희경(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공동연구 : 정영태(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

## 연구 요약



## 연구 요약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1995년 12월)된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성격차지수(GG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0.649으로 전체 144개국 중 116위, 하위 20%에 속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정책이 파급되는 것에는 여전히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책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구 청년여성들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25~35세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혐오와 여성혐오에 대한 인지도와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청년여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청년여성의 안전도 제고와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구시의 성평등 수준과 혐오 그리고 여성혐오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과 남성의 간격을 좁히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1) 조사개요

- 대구 청년여성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여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대구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를 진행
  -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대구 청년여성 실태조사, 2차는 대구 청년여성 정책 수요조사로 진행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7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1차 조사를, 2017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차 조사를 모바일 패널 조사로 진행

- 조사대상의 연령은 25~29세와 30~35세 각각 250명으로 평균 연령 1차 29.4세, 2차 29.7세이며, 직업군은 1차의 경우 사무·기술직(30.2%), 전업주부(19.6%), 자유·전문직(16.8%) 등이었으며, 2차는 사무·기술직(31.0%), 전업주부(20.0%), 자유·전문직(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 가치관과 인식

- 결혼·출산·동거에 관한 가치관을 5점 척도로 계산한 결과 결혼(3.42점)과 동거(3.37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출산(2.71점)은 부정적으로 나타남
  - 결혼과 동거는 긍정적인 반면, 출산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과 동거에 대해서는 30~35세의 청년여성과 기혼이 긍정적인 응답이, 출산에 대해서는 30~35세와 이혼의 경우가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은 결혼을 필수로 인식했던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개인의 선택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거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사회적 성공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급분류인 수저계급론이 유행하면서,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력이 큰(91.0%)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저계급론은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연령별로는 25~29세의 92.4%와 30~35세의 89.6%가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영향력이 없다는 응답은 25~29세의 1.6%와 30~35세의 2.8%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저계급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수저계급론으로 자신 직접 분류한 결과 44.0%가 자신을 동수저로 분류하였으며, 흙수저(39.2%), 은수저(13.4%), 금수저(2.4%), 다이아수저(1.0%)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수준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흙수저(69.7%), 그 외 학력은 동수저로 분류하였는데, 대학교와 대학원 재·휴학은 각각 50.0%, 대학교 졸업(45.7%), 대학원 졸업 이상(37.2%)의 순으로 나타남

### 3) 주거와 생활

- 거주형태는 주로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2%는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인·배우자가 28.2%, 형제·자매와 자녀가 17.4%이었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5.7%로 나타남
  -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62.6%), 연립주택/빌라(17.2%), 단독주택(10.6%), 원룸(7.0%), 오피스텔(1.4%)의 순으로 나타남
  
- 64.0%가 대구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36.7%) 떠나고 있음
  - 대구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64.0%, 여건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 36.0%로, 이주 희망 이유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36.7%),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27.8%), 가족 및 주변의 간섭이 심해서(10.0%),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8.9%) 순으로 나타남
  
- 필수생활시간 평균 10시간 29분, 의무생활시간 평균 9시간 30분, 여가생활시간 평균 4시간 1분
  - 수면 등 필수생활시간을 제외하고는 의무생활시간(9시간 30분) 중에서 일(수입노동)하는 시간이 5시간 12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생활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가시간(4시간 1분)의 절반가량(2시간 2분)을 미디어 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시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안전하다(37.4%)는 인식이 높았으나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체감정도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4.18점)’과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걷는 것(4.14점)’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직·간접 성폭력 경험(64.0%)과 데이트폭력 경험(77.6%)이 높게 나타남
  - 직·간접적인 성폭력 경험 유형은 성희롱(30.7%), 성기노출(20.0%),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19.8%),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13.2%)의 순임

- 직·간접 데이트폭력 경험 유형은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5.7%), 원치 않는 스킨십(15.6%),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5.5%), 기물파손(11.9%),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1.8%)의 순으로 나타남

#### 4) 노동과 일자리

- 57.2%가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72.0%가 정규직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9시간, 현 월평균 수입은 190.9만원으로 희망 월평균 수입과의 차 124.4만원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2.0%로 28%는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3명 중 1명이 불안정한 고용상태
  - 현 월평균 수입은 190.9만원, 희망 월평균 수입은 315.3만원으로 희망 월평균이 124.4만원 더 높음
-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관련분야 경력이 59.4%이며,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기회는 없다고 55.4%로 나타남
  -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관련분야 경력이(59.4%), 인맥(30.6%), 출신지 및 출신학교(26.4%), 자격증(26.4%), 학점 및 토익점수(18.6%), 외모(16.0%)의 순이며,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일 경험에 따른 차가 다소 존재
  -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 기회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25~29세의 54.8%, 30~35세의 56.0%가 일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

#### 5) 대구와 정책

-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로, 67.0%가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여성들이 생각하는 대구의 이미지는 보수적인 도시(40.5%), 폐쇄적인 도시(18.8%), 교육 도시(13.9%), 문화 도시(8.7%)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이 체감하는 대구지역의 평등 정도는 평등하지 않다가 67.0%으로, 25~29세의 68.4%, 30~35세의 65.6%가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유출은 심각한 현상이며,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부분이 그 원인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6년 대구사회조사에 따르면 인구 유출의 주 연령대는 20대 청년층으로 2005년부터 최근 11년간 순유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유출 현상은 심각하다는 의견 81.8%
  - 청년유출 현상의 원인은 낮은 임금(34.6%), 일자리 부족(27.7%), 열악한 근로환경(18.5%),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환경(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 유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시의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41.2%), 성별임금격차 해소(15.5%), 경력단절 예방(10.3%) 순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의 최대고민은 취업과 주거문제이며 가장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여가생활과 내 집 마련
  -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취업·일자리(19.6%), 주거(집)(15.9%), 결혼(14.6%), 자녀교육(13.6%)의 순이며 연령별로는 25~29세는 취업·일자리(24.5%), 결혼(19.5%), 주거(집)(13.2%)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자녀교육(23.2%), 주거(집)(18.6%), 취업, 일자리(14.6%)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여가생활(16.6%), 내집마련(14.0%), 꿈·희망(13.8%), 출산(11.8%), 결혼(10.0%)으로, 25~29세는 내집마련(16.7%), 꿈·희망(13.5%), 문화·여가생활(12.9%)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문화·여가생활(20.8%), 꿈·희망(14.2%), 출산(11.0%)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청년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34.3%가 취업·구직이라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보육·교육(16.7%), 주거(14.7%), 임신·출산(14.5%), 연애·결혼(10.5%)으로 이를 위하여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여성정책으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문화 조성(일·가정 양립환경)(37.7%), 미취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16.3%), 공공 보육시설 확대(15.9%), 지역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13.1%), 나홀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10.2%)으로 나타남

## 2.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1) 조사개요

- 최근 여성혐오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 온라인상의 성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 시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살펴보고 혐오 및 여성혐오 실태를 파악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2017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1:1 대면조사로 진행
  - 조사대상의 구성은 여성 52.5%, 남성 47.5%, 연령대는 20대 이하 19.5%, 30대 22.2%, 40대 18.6%, 50대 20.9%, 60대 이상 18.8%, 혼인상태는 미혼 32.7%, 기혼 67.3%로, 기혼(유배우) 65.0%, 이혼 0.5%, 사별 1.6%, 별거 0.2%

### 2) 양성평등 의식과 갈등

-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등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한편, 응답자 개인의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2.30점으로 성평등 의식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성평등 의식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자는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2.85점)’에 가장 동의하였으며,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2.03점)’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평등 의식의 점수가 낮아져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구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서 차별 받은 경험은 여성(51.2%)이 남성(21.8%)보다 29.4%p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40대가 차별 경험(60.4%)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이 차별 경험 없다(70.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구에 가장 살기 좋은 연령층은 성별을 떠나 ‘노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층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음
  - 노년 남성(21.6%), 노년 여성(18.6%), 중년 여성(16.7%), 중년 남성(12.7%), 중/고등학생 (10.5%), 유/초등학생 이하(9.8%), 청년남성(5.9%), 청년여성(4.2%)의 순임
  - 여성은 ‘노년 여성(22.0%)’, 남성은 ‘노년 남성(22.3%)’, 20대 이하는 ‘중년 남성(24.2%)’, 30대는 ‘노년 남성(21.5%)’, 40대는 ‘노년 남성(24.3%)’, 50대는 ‘중년 여성(28.1%)’, 60대 이상은 ‘노년 남성(28.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 되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여성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와 남성은 ‘여성할당제도’라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버스, 지하철의 임신출산여성 전용 좌석제 운영’(4.06점), ‘여성 안전 위한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제도 운영(3.93점)’, ‘생리휴가제도·생리결석 출석인정제도(3.83점)’, ‘부부강간죄 인정 판결(3.72점)’, ‘여성할당제도(3.15점)’,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2.90점)’의 순으로 나타남

### 3) 혐오표현과 여성혐오문제

- 혐오표현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일컫는 빨갱이(9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혐오표현으로는 김여사(75.6%)가 가장 높게 나타남. 혐오표현 유형의 경험은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혐오표현의 인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남성혐오표현인 한남총과 여성혐오표현인 김여사의 경우 여성의 인지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은 주로 인터넷이나 SNS의 노출도가 높은 20대 이하에게 높게 나타남. 한편, 남성혐오표현인 한남총에 대한 경험도

36.5%로 10명 중 4명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의 경험정도는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3.32점), 출신 지역과 관련된 혐오표현(3.28점),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3.16점),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3.06점),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3.00점),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2.97점)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혐오표현 유형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험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은 여성의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

○ 여성혐오 문제는 48.4%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성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인터넷·SNS(모바일 포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혐오표현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37.3%)가 가장 높음

-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14.8%), 그저 그렇다(30.1%), 잘 모르겠다(6.7%)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은 과반수 이상인 60.1%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35.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5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60대 이상(19.2%)이 가장 높음
- 여성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인터넷·SNS(모바일 포함)(52.0%),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27.4%), 직장·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7.8%), 친구·선배 등과의 사적인 모임(4.7%)의 순으로 온라인의 노출이 잦은 20대 이하가 인터넷·SNS(모바일 포함)에서의 경험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어들 것(37.3%)’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여성과 20·30대의 경우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혐오에 대한 의견으로는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27.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혐오에 대한 의견의 동의정도를 알아본 결과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27.7%)’,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와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다’가 각각 24.2%, ‘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14.0%)’, ‘여성혐오는 실체가 없으며 언론에 의해 과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용어이다(10.0%)'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 정책제언

- 대구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와 생활, 일자리를 위한 대구시 청년지원정책으로는 청년문화 바우처 지원, 미취업 청년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지역 여성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데이트폭력 홍보 캠페인,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정보공개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직무 교육을 제안하고자 함
- 대구를 떠나려고 하는 응답자(36.0%)는 일자리를 다음으로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27.8%) 대구를 떠나고 있음. 한편, 청년여성들이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16.6%가 문화·여가생활로 청년들이 대구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 20세 이상에서 만 39세 미만의 학생 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해주어야 함
- 대구시는 2015년 말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교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어야 함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여성들은 대구를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및 이들 간의 정례적 소통과 실질적 활동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구시에는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는 구성원이 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 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형사사법기관, 여성안전정책연구원, 교육청 등의 담당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의 직·간접 경험은 77.6%로 10명 중 8명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대한 청년여성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 따라서 데이트폭력이 폭력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년여성들에게 나아가 시민들에게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취업과 일자리 대구를 청년들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41.2%)에 대한 요구가 높음. 따라서 지역 기업체들의 고용환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대구지역 기업체들의 사내 복지제도와 직종 및 직급에 대한 평균 근무시간 및 평균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허위정보 기재 및 제도 유지를 위한 감시가 필요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여성정책으로는 미취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16.3%)에 대한 요구가 100명 중 16명으로 일·가정양립환경 조성에 이어 2번째로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의 특성에 맞게 취업준비생인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분야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직무 교육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기안 작성법, 지출서류 작성법 등에 대한 업무와 연관된 서류 작성법, 계약 절차, 예산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 나아가 고용인이 누려야할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인 연차, 육아휴직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평등 의식은 평균 2.30점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구지역의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세대별 교육이 필요하기에 생애주기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30 청년 대상 성(性) 교육, 부부 대상 성별 이해 교육, 온라인 윤리교육을 제안하고자 함
- 성평등 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가운데, 대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생애주기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함. 특히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의 인재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 교육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함

-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더불어 비교적 폐쇄적인 성교육을 받았던 대구지역의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관계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의 필요함. 올바른 피임법과 더불어 미디어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건강한 성문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함
- 우리나라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대구도 남녀갈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57.4%로 여성과 남성의 상호 이해교육이 필요함. 현재 대구시의 일부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를 위한 교육으로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이나 부부 이해관계증진을 위한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부의 남녀 성별에 대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학적 성(Gender)을 모두 아우르는 성별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함
- 여성혐오표현을 자주 접한 경로는 인터넷과 SNS(모바일 포함)(52.0%)로 20대의 73.0%와 30대의 70.1%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경험함. 이렇듯 온라인에 자주 노출되는 2030대가 여성혐오표현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혐오에 대한 무감각해지거나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부재의 문제로 혐오를 혐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온라인 윤리교육을 필수강의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수강하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II.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7
1. 조사개요 .....	9
2. 조사결과 .....	12
III. 대구 시민 양성평등 및 혐오 의식조사 .....	49
1. 조사개요 .....	51
2. 조사결과 .....	54
IV. 결 론 .....	73
1. 결론 및 시사점 .....	75
2. 정책제언 .....	79
참고문헌 .....	87
부록 : 여성100년, 시대별로 보는 청년여성 키워드 .....	89
부록 : 조사 설문지 .....	92

## 표 목 차

<표 II-1-1> 조사내용 .....	10
<표 II-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1
<표 II-2-1>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치관 비교 .....	13
<표 II-2-2>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치관 인식차이 .....	14
<표 II-2-3> 연령별 수저론 인식 정도 .....	15
<표 II-2-4> 연령별 최종학력별 수저분류 .....	16
<표 II-2-5> 연령별 혼인여부별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 .....	17
<표 II-2-6> 연령별 혼인여부별 거주형태 .....	18
<표 II-2-7> 연령별 대구 계속 거주 여부 .....	18
<표 II-2-8> 연령별 이주 희망 이유 .....	19
<표 II-2-9> 연령별 혼인여부별 매 끼니 대상과 식사유형 .....	22
<표 II-2-10> 연령별 혼인여부별 체중조절 경험유형 .....	23
<표 II-2-11> 연령별 혼인여부별 체중조절 이유 .....	24
<표 II-2-12> 연령별 혼인여부별 생활환경 전반에 관한 안전인식 정도 ..	24
<표 II-2-13> 연령별 혼인상태별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 평균 비교 .....	26
<표 II-2-14> 연령별 혼인여부별 직·간접 성폭력 경험 유무 .....	27
<표 II-2-15> 연령별 혼인여부별 직·간접 성폭력 경험 유형 .....	28
<표 II-2-16> 연령별 혼인여부별 데이트폭력 인지정도 .....	29
<표 II-2-17> 연령별 데이트폭력 직·간접 경험 유형 .....	30
<표 II-2-18> 연령별 데이트폭력 직접 경험 유무 .....	31
<표 II-2-19> 데이트폭력 직접 경험 유무 및 경험자 연령별 경험유형 ..	31
<표 II-2-20> 연령별 혼인여부별 데이트폭력 대처방안 .....	33
<표 II-2-21> 연령별 경험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근절 노력 .....	33
<표 II-2-22> 연령별 근로유무 및 고용형태, 평균 근무시간 .....	34
<표 II-2-23> 연령별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경험 업종 .....	36
<표 II-2-24> 연령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	36
<표 II-2-25> 연령별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 기회 .....	37
<표 II-2-26> 연령별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	38
<표 II-2-27> 연령별 대구 이미지 .....	39
<표 II-2-28> 연령별 대구 평등 정도 .....	39
<표 II-2-29> 연령별 청년유출 현상에 대한 생각 .....	40

<표 II-2-30> 연령별 대구 청년 유출 원인 .....	41
<표 II-2-31> 연령별 혼인여부별 대구 청년 유출 방지 정책 .....	42
<표 II-2-32> 연령별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정도 .....	43
<표 II-2-33> 연령별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정도 평균값 비교 .....	44
<표 II-2-34> 연령별 혼인여부별 고민 부문 .....	45
<표 II-2-35> 연령별 혼인여부별 포기 부문 .....	46
<표 II-2-36> 연령별 혼인여부별 대구 청년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 .....	47
<표 II-2-37> 연령별 혼인여부별 대구시 희망 여성정책 .....	48
<표 II-2-38> 연령별 청년수당 및 배당정책 필요성 .....	48
<표 III-1-1> 조사내용 .....	52
<표 III-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3
<표 III-2-1> 대구 양성평등 정도 .....	55
<표 III-2-2> 성별 연령별 성평등 의식 평균 .....	57
<표 III-2-3> 성별 연령별 대구가 양성평등 도시인가에 대한 생각 .....	58
<표 III-2-4> 성별 연령별 우리나라의 남녀갈등 심각성 .....	59
<표 III-2-5> 성별 연령별 대구의 남녀갈등 존재 여부 .....	60
<표 III-2-6> 성별 연령별 대구에 살기 좋은 연령층 .....	61
<표 III-2-7> 성별 연령별 대구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서 차별 받은 경험 .....	62
<표 III-2-8> 성별 연령별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의 찬반 의견 평균 .....	64
<표 III-2-9> 성별 연령별 혐오표현 인지 여부 .....	66
<표 III-2-10> 성별 연령별 혐오표현 유형 경험 .....	67
<표 III-2-11>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 .....	68
<표 III-2-12>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	69
<표 III-2-13>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전망 .....	69
<표 III-2-14>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 의견 .....	70
<표 III-2-15> 성별 연령별 혐오 관련 법 제정 시 포함 유형 .....	72

## 그림 목 차

[그림 II-2-1] 가치관별 평균값 비교 .....	13
[그림 II-2-2] 수저계급 분류 .....	16
[그림 II-2-3] 타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	19
[그림 II-2-4] 연령별 평균 하루생활시간 .....	20
[그림 II-2-5]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도 평균값 비교 .....	25
[그림 II-2-6] 직·간접 성폭력 경험 유형 .....	28
[그림 II-2-7] 데이트폭력 대처방안 .....	32
[그림 II-2-8] 연령별 취업여부별 현재와 희망 월평균 수입 .....	35
[그림 II-2-9]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	37
[그림 II-2-10] 대구 청년 유출 원인 .....	40
[그림 II-2-11]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정도 .....	43
[그림 II-2-12] 고민 부문 .....	45
[그림 II-2-13] 포기 부문 .....	46
[그림 III-2-1] 성평등 의식 평균 .....	56
[그림 III-2-2] 대구가 양성평등 도시인가에 대한 생각 .....	58
[그림 III-2-3] 대구에 남녀갈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 .....	60
[그림 III-2-4] 대구에 살기 좋은 연령층 .....	61
[그림 III-2-5]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의 찬반 의견 평균 .....	63
[그림 III-2-6] 혐오표현 인지 여부(‘들어본 적 있다’ 응답) .....	65
[그림 III-2-7]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	68
[그림 III-2-8] 혐오관련 법 제정 시 포함 유형 .....	71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1995년 12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7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sup>2)</sup>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 4차에 걸쳐서 수립·시행되면서 여성정책은 여성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양성평등과 더불어 돌봄, 가족, 일·가정양립,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남녀평등을 위한 약 2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성평등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0.649으로 전체 144개국 중 116위, 하위 20%에 속하고 있으며 1위인 아이슬란드(0.874)에 비해 0.225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1) 여성발전기본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2)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처럼 변화되는 정책이 파급되는 것에는 여전히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공익을 위하여 공공사업 추진, 계획, 예산 배정 등 다양한 행동으로 정의 되는 정책은 형성, 집행, 평가, 종결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마로미터인 풍향계와 같이 시민의 요구를 빠르게 정책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책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대구시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청년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더불어 대구시 청년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25~35세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혐오와 여성혐오에 대한 인지도와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청년여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청년여성의 안전도 제고와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구시의 성평등 수준과 혐오 그리고 여성혐오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과 남성의 간격을 좁히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정책 수요 조사 및 실태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화시킨 요약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구시 청년여성과 성평등 수준 및 혐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정책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로 대구 청년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대구의 양성평등 인식정도와 혐오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상자의 요구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25~35세의 청년여성들의 생활실태와 안전 인식 정도, 정책 수요를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둘째,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2017년 현재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짚어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인식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의 청년여성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대구 청년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대구 시민 양성평등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청년여성 생활실태 조사와 정책 수요조사는 25~35세의 대구거주 청년여성 각 50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인 생활실태와 2차의 정책 수요조사에 함께 참여한 응답자는 379명이었다. 청년<sup>3)</sup>여성을 25~35세로 제한하여 진행한 것은 사회초년생으로써, 혹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연령대로써 비교적 정책에 소외된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생활시간, 식사형태,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실태, 생활환경의 불안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대구시의 청년유출, 청년 지원 희망정책, 청년여성지원 희망 정책 등에 관한 정책수요에 대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구 시민 양성평등 인식 조사는 대구거주 20~60대의 남녀 554명을 대상으로

---

3) 대구광역시 2015년 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성별 연령별 할당하여 진행되었는데, 이처럼 할당한 것은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조사는 성평등 의식 수준, 남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 혐오표현 경험 정도 및 여성혐오표현 실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여성관련 정책의 찬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각 설문조사의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의 설문 검토와 더불어 각각 1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하였으며, 청년여성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조사는 모바일 패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각 5일간에 걸친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구 시민 양성평등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0일간에 걸쳐 1:1 대면조사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자문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청년여성 실태조사 후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여성단체 현장 전문가를 통한 청년여성 정책수요조사 설문, 여성과 시민사회 영역의 전문가를 통한 대구시민 양성평등 인식조사 설문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지와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

#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 1. 조사개요

대구 청년여성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여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대구 청년여성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대구 청년여성 실태조사, 2차는 대구 청년여성 정책 수요조사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를 통해 대구 청년여성의 고용 현황, 노동시간, 월 평균 수입 및 월 평균 희망 수입, 일하고 싶은 분야, 거주 현황, 주거형태, 생활시간, 식사형태 등과 같은 생활실태, 결혼출산 인식 등과 더불어 대구지역 정책 인지 유무, 대구 이미지, 희망 여성정책 등 대구 및 정책인식을 파악하였다. 2차 조사를 통해 대구 청년여성의 문제, 청년유출 현상, 성폭력 경험, 데이트폭력 경험, 생활환경 전반적인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대구 청년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대구 청년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가. 조사방법

청년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17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2차 조사는 2017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모바일 패널 조사로 진행하였다. 1차와 2차 조사의 표본 오차는  $\pm 4.38\%$ 이며 95%의 신뢰수준을 가진다.

조사지는 1차 일반적 특성, 가치관, 고용 현황, 노동시간 등 일자리 전반에 관한 내용, 대구시 시행 정책 인지여부, 대구 거주 여부, 대구 이미지 등 사회전반에 관한 내용, 주거형태, 데이트폭력 직·간접 경험 유무, 안전 인식 등 생활안전 전반에 관한 내용, 하루 평균 생활시간, 식사유무 및 유형, 체중조절 경험 등 생활·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차는 일반적 특성, 수저계급론, 자신이 포기하는 부분, 청년여성 문제, 청년유출 원인, 방지대책 등 청년 문제 및 유출에 관한 내용, 성폭력 경험, 데이트폭력 인지정도 및 경험, 근절대책 등 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 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김태홍·양인숙·김영택·황정임·배호중(2012), 박영주·윤우석(2014), 정하나

·김선화(2015), 오윤덕·신동훈·서난이(2016), 「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분석지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II-1-1> 조사내용

회차	구분	내용
1차	일반적 특성	연령, 혼인 상태, 최종학력
	가치관	결혼·동거·출산 인식, 주로 고민을 나누는 대상, 수저론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 고용형태,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희망 수입,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 기회,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업종,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문,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사회전반	고민 부분,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 대구 거주·이주, 대구 이미지, 대구의 성평등 인식, 대구시 우선 수행 여성정책
	주거·안전	동거 구성원, 주거형태, 생활환경 안전 인식, 데이트폭력 경험, 생활환경의 안전상태
	생활·건강	하루 평균 시간, 식사 유무, 식사대상, 식사유형, 체중조절 노력
2차	일반적 특성	혼인상태, 최종학력
	수저계급론	수저론 분류, 수저론 지표에 따른 분류
	정책·사회 부문	포기 부문, 청년여성의 문제, 청년유출 현상, 청년유출 현상 원인, 청년유출 방지 정책, 청년수당 및 배당 정책
	폭력·안전 부문	성폭력 경험, 데이트폭력 인지정도, 데이트폭력 경험, 데이트폭력 대처 방법, 데이트폭력 근절 노력, 생활환경 전반적인 안전 상태

#### 나. 조사대상

조사는 25세부터 35세까지의 대구거주 청년여성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의 선정 이유는 이 연령대의 청년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결혼 또는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등의 세대로, 생애주기별로 살펴볼 때 여성정책에서 드러나지 않는 연령대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연령 구성은 25~29세와 30~35세 각각 250명으로 평균 연령 1차 29.4세, 2차 29.7세이다.

직업군은 1차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19.6%, 자유·전문직 16.8% 등이었다. 2차 역시 사무·기술직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 20.0%, 자유·전문직 19.8% 등이었다.

혼인상태는 1차의 경우 미혼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 45.4%, 이혼 0.4%이었다. 2차도 미혼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 45.2%, 이혼 1.6%이었다.

최종 학력은 1차는 대학교 졸업(73.6%), 대학원 졸업(8.4%), 고등학교 졸업(8.0%)이었으며 2차도 1차와 같은 순서인 대학교 졸업(74.0%), 대학원 졸업(8.6%), 고등학교 졸업(6.6%)이었다.

<표 II-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 성		1차	2차
연령	25~29세	250(50.0)	250(50.0)
	30~35세	250(50.0)	250(50.0)
직업	경영·관리직	4(0.8)	4(0.8)
	공무원	12(2.4)	10(2.0)
	기능·작업직	6(1.2)	6(1.2)
	농·임·어·축산업	1(0.2)	2(0.4)
	대학생	26(5.2)	11(2.2)
	대학원생	5(1.0)	6(1.2)
	무직	28(5.6)	26(5.2)
	사무·기술직	151(30.2)	155(31.0)
	자영업	16(3.2)	14(2.8)
	자유·전문직	84(16.8)	99(19.8)
	전업주부	98(19.6)	100(20.0)
	판매·영업 서비스직	39(7.8)	41(8.2)
	기타	30(6.0)	26(5.2)
혼인상태	미혼	271(54.2)	265(53.0)
	기혼(배우자 있음)	227(45.4)	226(45.2)
	이혼	2(0.4)	8(1.6)
	별거	-	1(0.2)
최종학력	사별	-	-
	중학교 졸업 이하	3(0.6)	-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8.0)	33(6.6)
	대학교 재학	10(2.0)	11(2.2)
	대학교 휴학	19(3.8)	21(4.2)
	대학교 졸업	368(73.6)	370(74.0)
	대학원 재학	18(3.6)	14(2.8)
	대학원 휴학	-	8(1.6)
대학원 졸업 이상	42(8.4)	43(8.6)	
전체		500(100.0)	500(100.0)

주. 최종학력은 1차와 2차 조사 응답범주의 차이가 있음

## 2. 조사결과

### 가. 가치관과 인식

#### 1) 가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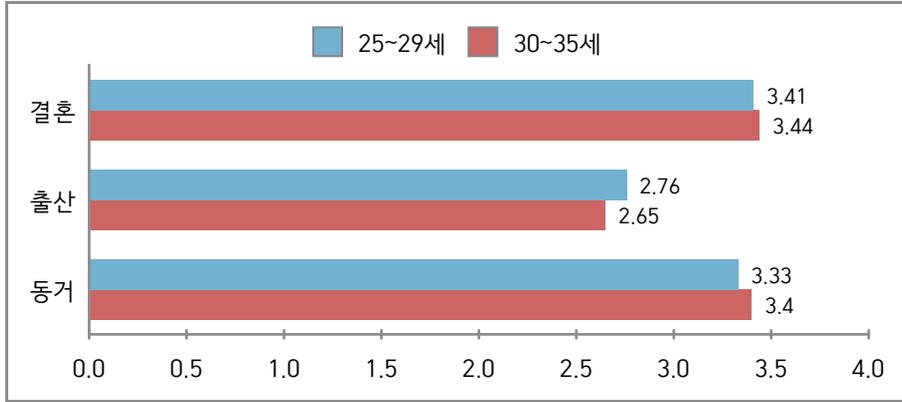
결혼·출산·동거에 관한 가치관을 5점 척도로 계산한 결과 결혼(3.42점)과 동거(3.37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출산(2.71점)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해 25~29세는 45.6%, 30~35세는 46.4%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동거는 25~29세 46.0%, 30~35세 46.4%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출산에 대해서는 25~29세 40.4%, 30~35세 41.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2015년 대구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9세의 48.0%, 30~39세의 48.4%가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비교할 때 청년층은 결혼을 필수로 인식했던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개인의 선택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해서는 미혼인 경우 38.0%가, 기혼(유배우) 55.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기혼 청년여성이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에 대한 생각 역시 미혼 39.9%, 기혼(유배우) 53.7%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출산에 대해서는 미혼의 43.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기혼(유배우)은 37.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혼인상태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출산·동거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과 동거는 긍정적인 반면, 출산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과 동거에 대해서는 30~35세의 청년여성과 기혼이 긍정적인 응답이, 출산에 대해서는 30~35세와 이혼의 경우가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3.42점)과 동거(3.37점)에 대한 평균값이 0.05점p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때, 대구시 청년여성들은 동거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1] 가치관별 평균값 비교

주. 결혼·출산·동거에 관한 가치관 : 5점 척도로, <3.0일 경우 부정, >3.0일 경우 긍정

<표 II-2-1>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치관 비교

(단위 : 응답 수, %)

구분		결혼			출산			동거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연령	25~29세	49(19.6)	87(34.8)	114(45.6)	101(40.4)	82(32.8)	67(26.8)	58(23.2)	77(30.8)	115(46.0)
	30~35세	39(15.6)	95(38.0)	116(46.4)	103(41.2)	95(38.0)	52(20.8)	45(18.0)	89(35.6)	116(46.4)
혼인 상태	미혼	61(22.5)	107(39.5)	103(38.0)	119(43.9)	94(34.7)	58(21.4)	75(27.7)	88(32.5)	108(39.9)
	기혼	25(11.0)	75(33.0)	127(55.9)	85(37.4)	81(35.7)	61(26.9)	28(12.3)	77(33.9)	122(53.7)
	이혼	2(100.0)	-	-	-	2(100.0)	-	-	1(50.0)	1(50.0)
전체		88(17.6)	182(36.4)	230(46.0)	204(40.8)	177(35.4)	119(23.8)	103(20.6)	166(33.2)	231(46.2)

주. 결혼·출산·동거에 관한 가치관 : 5점 척도(매우 긍정~매우 부정)를 3점 척도(긍정, 보통, 부정)로 재구성

<표 11-2-2>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치관 인식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결혼	연령	25~29세	3.41	1.08
		30~35세	3.44	0.97
	혼인상태	미혼	3.25	1.02
		기혼	3.65	0.98
		이혼	2.00	0.00
전체	3.42	1.02	-	
출산	연령	25~29세	2.76	1.12
		30~35세	2.65	1.05
	혼인상태	미혼	2.63	1.08
		기혼	2.80	1.10
		이혼	3.00	0.00
전체	2.71	1.09	-	
동거	연령	25~29세	3.33	1.15
		30~35세	3.40	1.06
	혼인상태	미혼	3.16	1.14
		기혼	3.61	1.02
		이혼	3.50	0.71
전체	3.37	1.11	-	

\* p<.05, \*\*p<.01, \*\*\*p<.001

## 2) 수저계급론

최근 사회적 성공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급분류인 수저계급론이 유행하면서,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성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평균값 2.89점으로 영향력이 큰(91.0%)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6.8%, 영향력이 없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92.4%와 30~35세의 89.6%가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영향력이 없다는 응답은 25~29세의 1.6%와 30~35세의 2.8%에 불과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저계급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3> 연령별 수저론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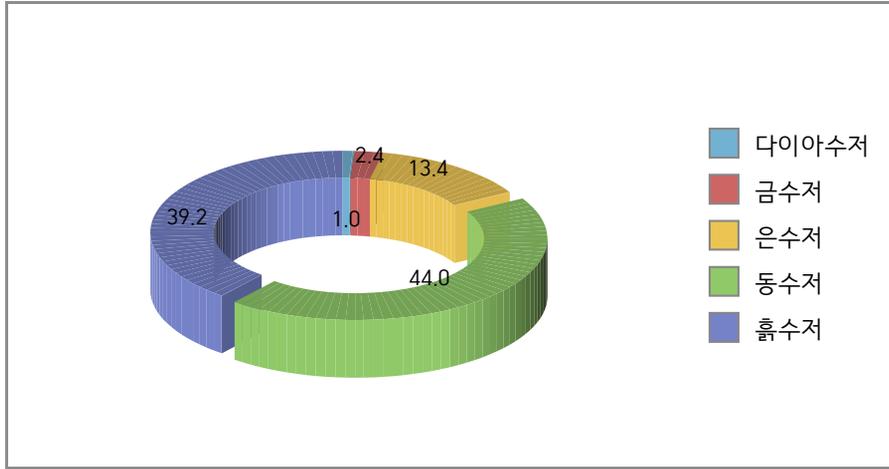
(단위 : 응답 수, %)

구분	영향력이 없다	보통이다	영향력이 크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25~29세	4(1.6)	15(6.0)	231(92.4)	2.91	0.34	1.180
30~35세	7(2.8)	19(7.6)	224(89.6)	2.87	0.41	
전체	11(2.2)	34(6.8)	455(91.0)	2.89	0.38	

주. 수저론 인식정도 : 7점 척도(전혀 영향력이 없다~매우 영향력이 크다)를 3점 척도(영향력이 없다, 보통이다, 영향력이 크다)로 재구성

이어 응답자들이 수저계급론으로 자신 직접 분류한 결과 44.0%가 자신을 동수저로 분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흠수저(39.2%), 은수저(13.4%), 금수저(2.4%), 다이아수저(1.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는 동수저(49.2%), 흠수저(31.2%), 은수저(15.6%), 금수저(2.0%), 다이아수저(2.0%)이었으며 30~35세는 흠수저(47.2%), 동수저(38.8%), 은수저(11.2%), 금수저(2.8%)로, 25~29세가 동수저와 은수저, 다이아수저 비율이 30~35세보다 조금 높았던 반면, 흠수저와 금수저 비율은 30~35세가 조금 더 높았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흠수저(69.7%), 그 외 학력은 동수저로 분류하였는데, 대학교와 대학원 재·휴학은 각각 50.0%, 대학교 졸업(45.7%), 대학원 졸업 이상(37.2%)의 순이었다. 즉, 수저계급론은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흠수저 인식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다이아수저와 금수저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다. 대학교와 대학원 재·휴학의 경우 흠수저 인식이 비교적 낮아졌다가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사회를 경험하면서 다시 흠수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졌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은수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2-2] 수저계급 분류

<표 II-2-4> 연령별 최종학력별 수저분류

(단위 : 응답 수, %)

구분		다이아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chi^2$
연령	25~29세	5(2.0)	5(2.0)	39(15.6)	123(49.2)	78(31.2)	18.375***
	30~35세	-	7(2.8)	28(11.2)	97(38.8)	118(47.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	-	2(6.1)	8(24.2)	23(69.7)	47.165**
	대학교 재·휴학	2(6.3)	-	4(12.5)	16(50.0)	10(31.3)	
	대학교 졸업	2(5)	9(2.4)	48(13.0)	169(45.7)	142(38.4)	
	대학원 재·휴학	1(4.5)	-	4(18.2)	11(50.0)	6(27.3)	
	대학원 졸업 이상	-	3(7.0)	9(20.9)	16(37.2)	15(34.9)	
전체		5(1.0)	12(2.4)	67(13.4)	220(44.0)	196(39.2)	-

\* p<.05, \*\*p<.01, \*\*\*p<.001

## 나. 주거와 생활

### 1) 거주형태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여성들의 거주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의 30.2%는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연인·배우자가 28.2%, 형제

·자매와 자녀가 17.4%이었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5.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45.0%), 형제·자매(27.2%), 연인·배우자(1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35세는 연인·배우자(41.8%), 자녀(28.6%), 부모 및 조부모(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25~29세 6.2%, 30~35세 5.2%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 형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부모 및 조부모(53.7%), 형제·자매(33.1%), 혼자(10.9%)로 나타났으며, 기혼(이혼 포함)은 연인·배우자(56.5%), 자녀(35.5%)로 나타났다. 이혼(n=2, 0.3%)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50.0%)와 함께 거주하거나 혼자(50.0%)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연령별 혼인여부별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

(단위 : 응답 수, %)

구분		부모 및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룸메이트	연인, 배우자	자녀	혼자	기타
연령	25~29세	167 (45.0)	101 (27.2)	2 (0.5)	3 (0.8)	52 (14.0)	21 (5.7)	23 (6.2)	2 (0.5)
	30~35세	62 (16.0)	31 (8.0)	1 (0.3)	1 (0.3)	162 (41.8)	111 (28.6)	20 (5.2)	-
혼인 형태	미혼	208 (53.7)	128 (33.1)	2 (0.5)	3 (0.8)	4 (1.0)	-	42 (10.9)	-
	기혼 (이혼)	21 (5.6)	4 (1.1)	1 (0.3)	1 (0.3)	210 (56.5)	132 (35.5)	1 (0.3)	2 (0.5)
전체		229 (30.2)	132 (17.4)	3 (0.4)	4 (0.5)	214 (28.2)	132 (17.4)	43 (5.7)	2 (0.3)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이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62.6%), 연립주택/빌라(17.2%), 단독주택(10.6%), 원룸(7.0%), 오피스텔(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는 아파트 거주가 5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빌라가 18.4%, 단독주택이 12.0%, 원룸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30~35세 역시 아파트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주택/빌라가 16.0%, 단독주택이 9.2%, 원룸이 6.4%의 순이었다. 한편 혼인형태별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원룸의 경우 미혼은 11.4%, 기혼은 1.7%로 9.7%p의 차가 났으며, 오피스텔 역시 미혼 2.2%, 기혼 0.4%로 1.8%p의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연령보다는 혼인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1-2-6> 연령별 혼인여부별 거주형태

(단위 : 응답 수, %)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빌라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기타	$\chi^2$
연령	25~29세	146 (58.4)	30 (12.0)	46 (18.4)	19 (7.6)	4 (1.6)	2 (0.8)	1 (0.4)	2 (0.8)	6.485
	30~35세	167 (66.8)	23 (9.2)	40 (16.0)	16 (6.4)	3 (1.2)	-	-	1 (0.4)	
혼인형태	미혼	137 (50.6)	42 (15.5)	50 (18.5)	31 (11.4)	6 (2.2)	2 (0.7)	1 (0.4)	2 (0.7)	49.827***
	기혼	176 (76.9)	11 (4.8)	36 (15.7)	4 (1.7)	1 (0.4)	-	-	1 (0.4)	
전체		313 (62.6)	53 (10.6)	86 (17.2)	35 (7.0)	7 (1.4)	2 (0.4)	1 (0.2)	3 (0.6)	-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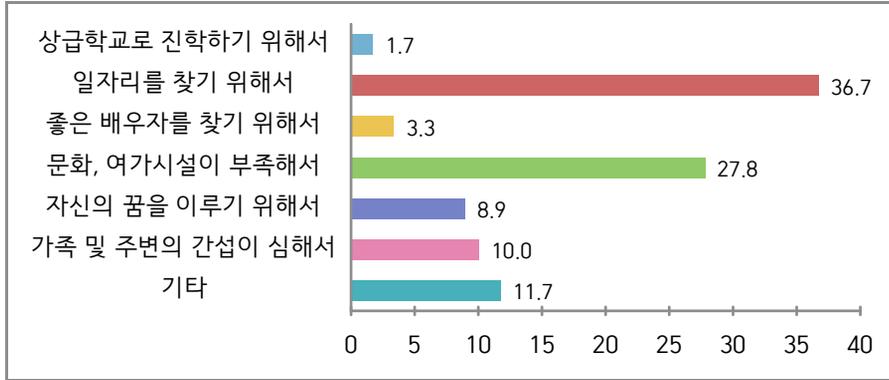
한편 주거와 관련, 대구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64.0%로, 25~29세 62.0%, 30~35세 66.0%로 나타났다. 반면 여건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는 36.0%로, 25~29세 38.0%, 30~35세 34.0%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3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27.8%), 가족 및 주변의 간섭이 심해서(10.0%),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8.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44.2%),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21.1%), 가족 및 주변의 간섭이 심해서(13.7%)로 나타났으며, 30~35세는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35.3%),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28.2%), 자신의 꿈의 이루기 위해서(8.2%)로 나타났다. 기타(11.7%)는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전원생활 희망), 도시를 떠나고 싶어서, 저임금 때문에, 친정 근처로 가고 싶어서 등의 이유였다.

<표 11-2-7> 연령별 대구 계속 거주 여부

(단위 : 응답 수, %)

구분	계속 거주하고 싶다	여건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	$\chi^2$
25~29세	155(62.0)	95(38.0)	.868
30~35세	165(66.0)	85(34.0)	
전체	320(64.0)	180(36.0)	

(단위 : %)



[그림 11-2-3] 타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표 11-2-8> 연령별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응답 수,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i^2$
25~29세	-	42(44.2)	5(5.3)	20(21.1)	9(9.5)	13(13.7)	6(6.3)	18.439**
30~35세	3(3.5)	24(28.2)	1(1.2)	30(35.3)	7(8.2)	5(5.9)	15(17.6)	
전체	3(1.7)	66(36.7)	6(3.3)	50(27.8)	16(8.9)	18(10.0)	21(11.7)	

- 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 ② 일 자리를 찾기 위해서
- ③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 ④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 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 ⑥ 가족 및 주변의 간섭이 심해서
- ⑦ 기타

\* p<.05, \*\*p<.01, \*\*\*p<.001

## 2) 생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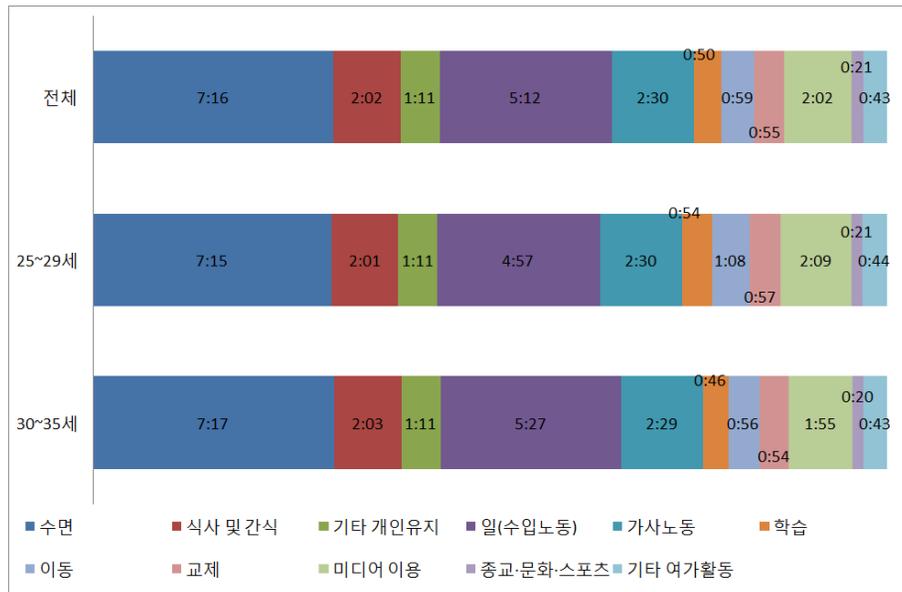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여성들의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 시간과 식사 여부, 유형 등을 알아보았다.

생활시간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척도를 활용,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 결과 필수생활시간 평균 10시간 29분, 의무생활시간 평균 9시간 30분, 여가생활시간 평균 4시간 1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해보면 필수생활시간 중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16분, 식사 및 간식시간 평균 2시간 2분, 기타 개인유지시간 평균 1시간 11분이었다. 의무생활시간 중 일(수업노동)시간은 평균 5시간 12분, 가사노동시간 평균 2시간 29분, 이동시간 평균 59분, 학습시간 평균 50분이었다. 여가생활시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평균 2시간 2분이었으며, 교제시간은 평균 55분, 기타 여가활동시간 평균 43분, 종교·문화·스포츠 시간 평균 21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의 필수생활시간은 평균 10시간 27분, 의무생활시간 평균 9시간 39분, 여가생활시간 평균 4시간 11분이었으며 30~35세의 필수생활시간은 평균 10시간 31분, 의무생활시간 평균 9시간 38분, 여가생활시간 3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단위 : 시간:분)



[그림 II-2-4] 연령별 평균 하루생활시간

매 끼니별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침식사는 37.4%, 점심식사는 92.8%, 저녁식사는 93.4%가 먹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끼니별 식사 대상과 식사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식사는 가족(62.0%)과, 유형은 집밥(86.6%)이 가장 많았다. 점심식사는 동료(45.7%)와, 주로 집밥(도시락 포함)(46.1%), 식당(39.9%)이 많았

으며 저녁식사는 가족(67.7%)과 집밥(78.6%)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는 아침을 가족(53.8%) 또는 혼자(43.0%), 집밥(86.0%)을, 점심은 동료(55.5%)와 식당(46.2%) 또는 집밥(도시락 포함)(38.1%)을, 저녁은 가족(57.8%)과 집밥(72.6%)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집밥으로 가족과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 끼니의 경우 혼자의 비율이 평균 46.7%로 10명 중 5명은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35세는 아침은 가족(70.2%)과 집밥(87.2%), 점심은 혼자(37.3%) 또는 동료(35.5%)와 집밥(도시락 포함)(54.4%), 저녁은 가족(77.8%)과 집밥(84.8%)로 나타났으며 혼밥의 비율은 평균 26.5%로 25~29세에 비해 20.2%p 낮았다.

혼인형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아침식사는 가족(49.5%) 또는 혼자(44.3%), 집밥(84.5%)을, 점심식사는 동료(59.9%)와 식당(50.4%), 저녁식사는 가족(50.0%)과 집밥(70.0%)이었으며 기혼의 경우 아침식사는 가족(75.6%)과 집밥(88.9%), 점심은 혼자(38.2%)와 집밥(도시락 포함)(59.0%), 저녁은 가족(87.7%)과 집밥(88.1%) 혼의 매 끼니별 혼밥 비율은 평균 32.9%로 기혼보다 8.5%p 높았다.

전반적으로 아침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집밥을 먹으며 점심은 주로 동료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25~29세나 미혼은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30~35세나 기혼의 과반수 이상은 점심식사를 가정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9> 연령별 혼인여부별 매 끼니 대상과 식사유형

(단위 : 응답 수, %)

구분			대상					$\chi^2$	유형						$\chi^2$
			혼자	가족	친구	동료	기타		집밥	편의점	식당	패스트푸드	분식	기타	
아 침 식 사	연령	25~29세	40 (43.0)	50 (53.8)	-	3 (3.2)	-	6.863	80 (86.0)	2 (2.2)	1 (1.1)	-	-	10 (10.8)	8.020
		30~35세	25 (26.6)	66 (70.2)	1 (1.1)	2 (2.1)	-		82 (87.2)	-	1 (1.1)	4 (4.3)	1 (1.1)	6 (6.4)	
	혼인 형태	미혼	43 (44.3)	48 (49.5)	1 (1.0)	5 (5.2)	-	15.993 ***	82 (84.5)	2 (2.1)	2 (2.1)	1 (1.0)	-	10 (10.3)	6.772
		기혼	22 (24.4)	68 (75.6)	-	-	-		80 (88.9)	-	-	3 (3.3)	1 (1.1)	6 (6.7)	
	소계		65 (34.8)	116 (62.0)	1 (0.5)	5 (2.7)	-	-	162 (86.6)	2 (1.1)	2 (1.1)	4 (2.1)	1 (0.5)	16 (8.6)	-
점 심 식 사	연령	25~29세	63 (26.7)	30 (12.7)	10 (4.2)	131 (55.5)	2 (0.8)	22.113 ***	90 (38.1)	7 (3.0)	109 (46.2)	4 (1.7)	4 (1.7)	22 (9.3)	13.840*
		30~35세	85 (37.3)	50 (21.9)	12 (5.3)	81 (35.5)	-		124 (54.4)	4 (1.8)	76 (33.3)	3 (1.3)	6 (2.6)	15 (6.6)	
	혼인 형태	미혼	67 (26.6)	21 (8.3)	11 (4.4)	151 (59.9)	2 (0.8)	56.554 ***	89 (35.3)	4 (1.6)	127 (50.4)	4 (1.6)	5 (2.0)	23 (9.1)	31.729 ***
		기혼	81 (38.2)	59 (27.8)	11 (5.2)	61 (28.8)	-		125 (59.0)	7 (3.3)	58 (27.4)	3 (1.4)	5 (2.4)	14 (6.6)	
	소계		148 (31.9)	80 (17.2)	22 (4.7)	212 (45.7)	2 (0.4)	-	214 (46.1)	11 (2.4)	185 (39.9)	7 (1.5)	10 (2.2)	37 (8.0)	-
저 녁 식 사	연령	25~29세	56 (23.6)	137 (57.8)	24 (10.1)	15 (6.3)	5 (2.1)	24.116 ***	172 (72.6)	9 (3.8)	30 (12.7)	12 (5.1)	5 (2.1)	9 (3.8)	80.422 ***
		30~35세	36 (15.7)	179 (77.8)	8 (3.5)	5 (2.2)	2 (0.9)		195 (84.8)	2 (0.9)	20 (8.7)	2 (0.9)	3 (1.3)	8 (3.5)	
	혼인 형태	미혼	69 (27.8)	124 (50.0)	30 (12.1)	18 (7.3)	7 (2.8)	15.496 **	174 (70.2)	10 (4.0)	37 (14.9)	10 (4.0)	7 (2.8)	10 (4.0)	25.767 ***
		기혼	23 (10.5)	192 (87.7)	2 (0.9)	2 (0.9)	-		193 (88.1)	1 (0.5)	13 (5.9)	4 (1.8)	1 (0.5)	7 (3.2)	
	소계		92 (19.7)	316 (67.7)	32 (6.9)	20 (4.3)	7 (1.5)	-	367 (78.6)	11 (2.4)	50 (10.7)	14 (3.0)	8 (1.7)	17 (3.6)	-

\* p<.05, \*\*p<.01, \*\*\*p<.001

한편 청년여성들의 체중조절(다이어트) 경험과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체중조절 경험은 85.4%로 유형은 운동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이요법(24.6%), 체중조절 보조제(16.2%)의 순이었다. 체중조절 경험이 없다는 14.6%로, 25~29세(87.9%)가 30~35세(82.8%)보다 5.1%p 높았으며, 유형으로는 25~29세의 경우 운동(37.2%), 식이요법(26.5%), 체중조절 보조제(15.2%)의 순이었으며 30~35세도 역시 운동(31.0%), 식이요법(22.5%), 체중조절 보조제(17.2%)의 순이었다.

혼인형태에 따른 체중조절 경험은 미혼의 11.1%와 기혼의 18.8%가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하여 미혼이 체중조절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유형은 혼인형태와 상관없이 운동, 식이요법, 체중조절 보조제의 순이었다.

<표 II-2-10> 연령별 혼인여부별 체중조절 경험유형

(단위 : 응답 수, %)

구분		운동	식이요법	체중조절보조제	병원(한의원 등)	단식원	지방흡입 등 시술	전문샵	기타	경험없음
연령	25~29세	157 (37.2)	112 (26.5)	64 (15.2)	27 (6.4)	1 (0.2)	3 (0.7)	5 (1.2)	2 (0.5)	51 (12.1)
	30~35세	128 (31.0)	93 (22.5)	71 (17.2)	37 (9.0)	2 (0.5)	3 (0.7)	5 (1.2)	3 (0.7)	71 (17.2)
혼인형태	미혼	174 (38.5)	113 (25.0)	66 (14.6)	35 (7.7)	3 (0.7)	3 (0.7)	5 (1.1)	3 (0.7)	50 (11.1)
	기혼	111 (29.0)	92 (24.0)	69 (18.0)	29 (7.6)	-	3 (0.8)	5 (1.3)	2 (0.5)	72 (18.8)
전체		285 (34.1)	205 (24.6)	135 (16.2)	64 (7.7)	3 (0.4)	6 (0.7)	10 (1.2)	5 (0.6)	122 (14.6)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한편, 체중조절의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만족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을 위하여(33.5%),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18.6%), 결혼(3.0%), 주변 사람의 권유(2.9%)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의 경우 개인의 만족(35.2%), 건강을 위하여(30.8%),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20.5%), 결혼(3.8%), 이성교제(3.4%)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개인의 만족(40.2%), 건강을 위하여(36.3%),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16.5%), 주변 사람의 권유(2.6%)의 순이었다.

혼인형태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역시 미혼과 기혼, 관계없이 개인의 만족, 건강을 위하여,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의 순이었으나 미혼의 경우 결혼(4.9%), 주변 사람의 권유(3.7%), 이성교제(3.2%) 순이었던 것에 반해 기혼의 경우 주변 사람의 권유(1.9%), 취업(1.6%) 순이었다.

<표 II-2-11> 연령별 혼인여부별 체중조절 이유

(단위 : 응답 수, %)

구분		건강을 위하여	결혼	이성 교제	취업	개인의 만족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주변 사람의 권유	기타
연령	25~29세	147(30.8)	18(3.8)	16(3.4)	14(2.9)	168(35.2)	98(20.5)	15(3.1)	1(0.2)
	30~35세	167(36.3)	10(2.2)	3(0.7)	6(1.3)	185(40.2)	76(16.5)	12(2.6)	1(0.2)
혼인 형태	미혼	160(31.6)	25(4.9)	16(3.2)	13(2.6)	178(35.1)	95(18.7)	19(3.7)	1(0.2)
	기혼	154(35.8)	3(0.7)	3(0.7)	7(1.6)	175(40.7)	79(18.4)	8(1.9)	1(0.2)
전체		314(33.5)	28(3.0)	19(2.0)	20(2.1)	353(37.7)	174(18.6)	27(2.9)	2(0.2)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 3) 생활안전

대구시 생활환경의 안전정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하다가 37.4%, 안전하지 않다가 1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와 30~35세 모두 안전하다는 응답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25~29세가 30~35세보다 8.4%p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25~35세의 청년여성들은 대구를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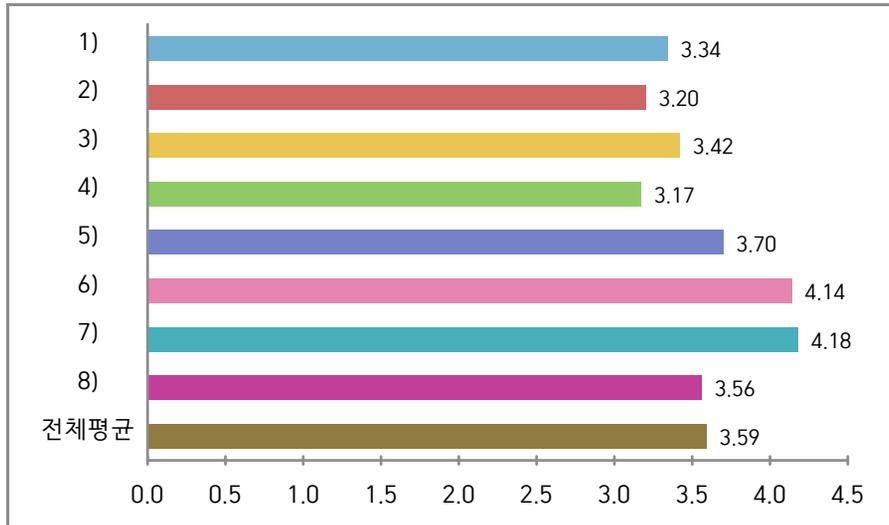
<표 II-2-12> 연령별 혼인여부별 생활환경 전반에 관한 안전인식 정도

(단위 : 응답 수, %, 점)

구분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연령	25~29세	47(18.8)	99(39.6)	104(41.6)	4.34	1.10	
	30~35세	51(20.4)	116(46.4)	83(33.2)	4.22	1.05	
혼인 상태	미혼	59(21.8)	115(42.4)	97(35.8)	4.23	1.05	-1.243
	기혼	39(17.0)	100(43.7)	90(39.3)	4.34	1.10	
전체		98(19.6)	215(43.0)	187(37.4)	-	-	-

그러나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정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 3.59점으로 생활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4.18점)’과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걷는 것(4.14점)’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있을까 봐(3.17점)’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에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혼인상태에 따라 생활환경의 세부 영역별 안전체감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두려움,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몰래 지켜

볼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집에 있을 때 낯선 사람 방문'의 두려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미혼이 기혼에 비하여 이러한 세부항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기혼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 위험 발생 시 도움을 구하거나 미연이 방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혼의 경우 그리고 특히 혼자 거주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II-2-5]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도 평균값 비교

- 1)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봐 무섭다
- 2)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무섭다
- 3)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 4) 누군가가 나를 훑아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렵다
- 5)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 6)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
- 7) 지하철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 8)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주.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도 : <3.0일 경우 두렵다로, >3.0일 경우 두렵지 않다로 계산

<표 11-2-13> 연령별 혼인상태별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 평균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①	연령	25~29세	3.32	1.00	-.265
		30~35세	3.35	1.02	
	혼인 상태	미혼	3.35	1.03	.262
		기혼	3.32	0.99	
	전체		3.34	1.01	-
②	연령	25~29세	3.16	1.01	-.754
		30~35세	3.23	1.00	
	혼인 상태	미혼	3.25	1.03	1.114
		기혼	3.14	0.99	
	전체		3.20	1.01	-
③	연령	25~29세	3.42	1.04	.086
		30~35세	3.42	1.04	
	혼인 상태	미혼	3.54	1.04	2.754**
		기혼	3.29	1.02	
	전체		3.42	1.04	-
④	연령	25~29세	3.24	1.11	1.420
		30~35세	3.10	1.10	
	혼인 상태	미혼	3.33	1.11	3.445***
		기혼	3.00	1.07	
	전체		3.17	1.10	-
⑤	연령	25~29세	3.73	1.05	.648
		30~35세	3.67	1.02	
	혼인 상태	미혼	3.81	1.05	2.433*
		기혼	3.58	1.00	
	전체		3.70	1.04	-
⑥	연령	25~29세	4.18	0.95	.865
		30~35세	4.10	0.91	
	혼인 상태	미혼	4.12	0.99	-.491
		기혼	4.16	0.86	
	전체		4.14	0.93	-
⑦	연령	25~29세	4.23	0.85	1.239
		30~35세	4.14	0.88	
	혼인 상태	미혼	4.22	0.91	.961
		기혼	4.14	0.81	
	전체		4.18	0.87	-
⑧	연령	25~29세	3.50	1.04	-1.311
		30~35세	3.62	1.00	
	혼인 상태	미혼	3.54	1.06	-.379
		기혼	3.57	0.98	
	전체		3.56	1.02	-

- ①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봐 무섭다      ②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무섭다  
 ③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④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렵다  
 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⑥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  
 ⑦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⑧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 p<.05, \*\*p<.01, \*\*\*p<.001

이어서 응답자들에게 직·간접 성폭력 경험과 경험 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64.0%가 성폭력의 직·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의 경험이 65.6%로 30~35세보다 3.2%p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66.0%로 기혼보다 4.0%p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11-2-14 > 연령별 혼인여부별 직·간접 성폭력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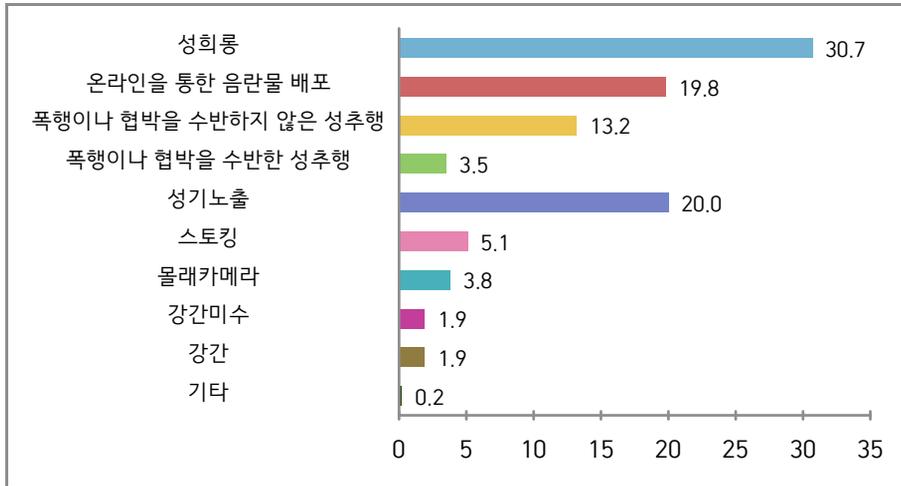
(단위 : 응답 수, %)

구분		없음	있음
연령	25~29세	86(34.4)	164(65.6)
	30~35세	94(37.6)	156(62.4)
혼인여부	미혼	85(34.0)	165(66.0)
	기혼	95(38.0)	155(62.0)
전체		180(36.0)	320(64.0)

직·간접적인 성폭력 경험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기노출(20.0%),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19.8%),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13.2%)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은 연령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년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한 성폭력 유형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다음으로 많이 경험한 유형에 대해서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는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22.9%), 성기노출(20.2%),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13.3%)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성기노출(19.7%),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16.4%),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13.0%)의 순이었다. 혼인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25~29세와 동일하게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21.4%), 성기노출(17.9%),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14.3%)이었으며 기혼은 30~35세와 동일하게 성기노출(23.4%),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17.2%),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11.3%)의 순이었다.

한편 성폭행 유형 중 흉악범죄에 속하는 강간은 25~29세의 1.8%, 30~35세의 2.0%, 미혼의 1.8%, 기혼의 2.1%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2-6] 직·간접 성폭력 경험 유형

<표 II-2-15> 연령별 혼인여부별 직·간접 성폭력 경험 유형

(단위 : 응답 수,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연령	25~29세	93 (28.0)	76 (22.9)	44 (13.3)	10 (3.0)	67 (20.2)	13 (3.9)	17 (5.1)	5 (1.5)	6 (1.8)	1 (0.3)
	30~35세	101 (33.8)	49 (16.4)	39 (13.0)	12 (4.0)	59 (19.7)	19 (6.4)	7 (2.3)	7 (2.3)	6 (2.0)	-
혼인여부	미혼	115 (29.3)	84 (21.4)	56 (14.3)	17 (4.3)	70 (17.9)	16 (4.1)	17 (4.3)	9 (2.3)	7 (1.8)	1 (0.3)
	기혼	79 (33.1)	41 (17.2)	27 (11.3)	5 (2.1)	56 (23.4)	16 (6.7)	7 (2.9)	3 (1.3)	5 (2.1)	-
전체		194 (30.7)	125 (19.8)	83 (13.2)	22 (3.5)	126 (20.0)	32 (5.1)	24 (3.8)	12 (1.9)	12 (1.9)	1 (0.2)

- ① 성희롱
- ②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
- ③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 ④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 ⑤ 성기노출
- ⑥ 스톱킹
- ⑦ 몰래카메라
- ⑧ 강간미수
- ⑨ 강간
- ⑩ 기타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최근 안전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폭력의 인지정도와 직·간접 경험, 경험 유형, 직접 경험, 대처 방안 등을 물어보았다.

먼저 데이트폭력 유형의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데이트폭력 유형을 나열하고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을 모두 선택하라고 한 결과 대부분의 청

년 여성이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유형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80%이상의 청년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형으로는 13가지 가운데 협박 및 위협 또는 자해(83.0%), 기물파손(80.8%), 신체폭력(86.6%), 원치 않는 스킨십(80.0%)으로 30.8%인 4가지에 불과하였다. 70% 이상의 청년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형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79.2%), 스토킹(73.6%), 몰래카메라(71.2%), 납치 및 감금(79.8%), 원치 않는 성관계(79.4%)로 역시 4가지에 불과하였다. 반면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46.8%)과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52.8%)의 경우 50%에 불과하여 10명 중 5명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도 데이트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6> 연령별 혼인여부별 데이트폭력 인지정도

(단위 : 응답 수, %)

구분		연령		혼인상태		전체
		25~29세	30~35세	미혼	기혼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	맞다	132(52.8)	132(52.8)	148(55.8)	116(49.4)	264(52.8)
	아니다	118(47.2)	118(47.2)	117(44.2)	119(50.6)	236(47.2)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	맞다	118(47.2)	116(46.4)	134(50.6)	100(42.6)	234(46.8)
	아니다	132(52.8)	134(53.6)	131(49.4)	135(57.4)	266(53.2)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	맞다	203(81.2)	193(77.2)	221(83.4)	175(74.5)	396(79.2)
	아니다	47(18.8)	57(22.8)	44(16.6)	60(25.5)	104(20.8)
갈취(금전 및 물품 등)	맞다	167(66.8)	173(69.2)	188(70.9)	152(64.7)	340(68.0)
	아니다	83(33.2)	77(30.8)	77(29.1)	83(35.3)	160(32.0)
협박 및 위협 또는 자해	맞다	212(84.8)	203(81.2)	226(85.3)	189(80.4)	415(83.0)
	아니다	38(15.2)	47(18.8)	39(14.7)	46(19.6)	85(17.0)
기물파손	맞다	206(82.4)	198(79.2)	222(83.8)	182(77.4)	404(80.8)
	아니다	44(17.6)	52(20.8)	43(16.2)	53(22.6)	96(19.2)
온·오프라인에서의 사생활 폭로	맞다	175(70.0)	168(67.2)	190(71.7)	153(65.1)	343(68.6)
	아니다	75(30.0)	82(32.8)	75(28.3)	82(34.9)	157(31.4)
스토킹	맞다	186(74.4)	182(72.8)	203(76.6)	165(70.2)	368(73.6)
	아니다	64(25.6)	68(27.2)	62(23.4)	70(29.8)	132(26.4)
몰래카메라	맞다	185(74.0)	171(68.4)	201(75.8)	155(66.0)	356(71.2)
	아니다	65(26.0)	79(31.6)	64(24.2)	80(34.0)	144(28.8)
납치 및 감금	맞다	206(82.4)	193(77.2)	217(81.9)	182(77.4)	399(79.8)
	아니다	44(17.6)	57(22.8)	48(18.1)	53(22.6)	101(20.2)
신체폭력	맞다	223(89.2)	210(84.0)	237(89.4)	196(83.4)	433(86.6)
	아니다	27(10.8)	40(16.0)	28(10.6)	39(16.6)	67(13.4)
원치 않는 스킨십	맞다	207(82.8)	193(77.2)	224(84.5)	176(74.9)	400(80.0)
	아니다	43(17.2)	57(22.8)	41(15.5)	59(25.1)	100(20.0)
원치 않는 성관계	맞다	200(80.0)	197(78.8)	217(81.9)	180(76.6)	397(79.4)
	아니다	50(20.0)	53(21.2)	48(18.1)	55(23.4)	103(20.6)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이어 직·간접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데이트폭력 경험 있다는 응답이 77.6%로 나타나 10명 중 약 8명은 데이트폭력의 직·간접 경험이 있었다.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는 17.2%로 25~29세 14.4%, 30~35세 20.0%로 나타났다.

직·간접 경험 유형으로는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이 1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스킨십(15.6%),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5.5%), 기물파손(11.9%),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1.8%)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의 76.4%는 데이트폭력의 직·간접 경험이 있었으며 유형은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6.6%),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6.1%), 원치 않는 스킨십(15.9%), 기물파손(11.2%)의 순이었다. 30~35세도 78.9%의 경험이 있었으며 유형은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5.3%), 원치 않는 스킨십(15.3%),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4.4%),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3.3%)의 순이었다.

30~35세가 2.6%p 더 직·간접 경험이 높았으며, 데이트폭력 유형 중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신체폭력 및 납치·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 등의 정신적 폭력,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성관계 등의 성적 경험 등 데이트폭력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I-2-17> 연령별 데이트폭력 직·간접 경험 유형

(단위 : 응답 수,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5~29세	68 (16.6)	66 (16.1)	42 (10.2)	34 (8.3)	46 (11.2)	65 (15.9)	30 (7.3)	23 (5.6)	7 (1.7)	29 (7.1)	-
30~35세	62 (14.4)	66 (15.3)	57 (13.3)	31 (7.2)	54 (12.6)	66 (15.3)	29 (6.7)	25 (5.8)	7 (1.6)	32 (7.4)	1 (0.2)
전체	130 (15.5)	132 (15.7)	99 (11.8)	65 (7.7)	100 (11.9)	131 (15.6)	59 (7.0)	48 (5.7)	14 (1.7)	61 (7.3)	1 (0.1)

- ①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
- ③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
- ⑤ 기물파손(물건던지기, 문이나 벽 차기 등)
- ⑦ 원치 않는 성관계
- ⑨ 납치 및 감금
- ⑪ 기타

- ②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
- ④ 협박 및 위협 또는 자해
- ⑥ 원치 않는 스킨십
- ⑧ 신체폭력(상처를 입히는 행위)
- ⑩ 스토킹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한편 데이트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17.2%)들의 데이트폭력 경험(16.4%)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4.3%),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

(13.9%),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2.7%), 원치 않는 스킨십(12.4%), 기물파손(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의 경우 원치 않는 스킨십이 1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3.6%),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2.5%)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6.4%),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4.0%),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과 기물파손(물건던지기, 문이나 벽 차기 등)(12.9%)의 순이었다. 직접적인 데이트폭력의 경험은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25~29세의 경우 원치 않는 스킨십(14.8%), 원치 않는 성관계(10.2%)와 같은 성적 폭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2-18> 연령별 데이트폭력 직접 경험 유무

(단위 : 응답 수, %)

구분	있음	없음
25~29세	22(12.4)	155(87.6)
30~35세	40(19.8)	162(80.2)
전체	62(16.4)	317(83.6)

주. 1, 2차 조사 응답자들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표 II-2-19> 데이트폭력 직접 경험 유무 및 연령별 경험유형

(단위 : 응답 수,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경험유무	있음	33 (12.7)	36 (13.9)	37 (14.3)	20 (7.7)	31 (12.0)	32 (12.4)	21 (8.1)	22 (8.5)	5 (1.9)	22 (8.5)	-
	없음	68 (17.8)	61 (16.0)	36 (9.4)	29 (7.6)	39 (10.2)	69 (18.1)	28 (7.3)	18 (4.7)	8 (2.1)	24 (6.3)	1 (0.3)
	전체	101 (15.8)	97 (15.2)	73 (11.4)	49 (7.7)	70 (10.9)	101 (15.8)	49 (7.7)	40 (6.3)	13 (2.0)	46 (7.2)	1 (0.2)
경험자연령	25~29세	11 (12.5)	12 (13.6)	9 (10.2)	6 (6.8)	9 (10.2)	13 (14.8)	9 (10.2)	9 (10.2)	1 (1.1)	9 (10.2)	-
	30~35세	22 (12.9)	24 (14.0)	28 (16.4)	14 (8.2)	22 (12.9)	19 (11.1)	12 (7.0)	13 (7.6)	4 (2.3)	13 (7.6)	-
	전체	33 (12.7)	36 (13.9)	20 (14.3)	20 (7.7)	31 (12.0)	32 (12.4)	21 (8.1)	22 (8.5)	5 (1.9)	22 (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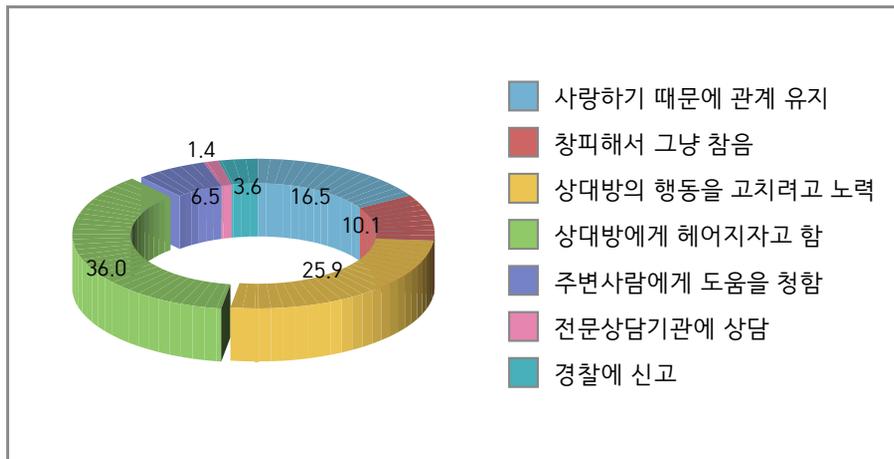
- ①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
- ②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
- ③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
- ④ 협박 및 위협 또는 자해
- ⑤ 기물파손(물건던지기, 문이나 벽 차기 등)
- ⑥ 원치 않는 스킨십
- ⑦ 원치 않는 성관계
- ⑧ 신체폭력(상처를 입히는 행위)
- ⑨ 납치 및 감금
- ⑩ 스토킹
- ⑪ 기타

주. 1, 2차 조사 응답자들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데이트폭력의 직접적인 경험자(17.2%)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안으로는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함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25.9%),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유지(16.5%), 창피해서 그냥 참음(10.1%)의 순이었다. 연령과 혼인여부로 살펴봐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25~29세의 경우 창피해서 그냥 참음이 12.5%로 30~35세보다 4.1%p 더 높았다. 또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7.1%)과 전문상담기관에 상담(0%), 경찰에 신고는(1.8%)로 30~35세보다 더 낮아 25~29세가 데이트폭력 대처에 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처방안은 주로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하거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치고 있었으며, 전문기관 상담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11-2-7] 데이트폭력 대처방안

<표 11-2-20> 연령별 혼인여부별 데이트폭력 대처방안

(단위 : 응답 수, %)

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유지	창피해서 그냥 참음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	상대방에게 헤어지지요 함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전문상담 기관에 상담	경찰에 신고
연령	25~29세	11(19.6)	7(12.5)	13(23.2)	20(35.7)	4(7.1)	-	1(1.8)
	30~35세	12(14.5)	7(8.4)	23(27.7)	30(36.1)	5(6.0)	2(2.4)	4(4.8)
혼인 여부	미혼	16(18.8)	8(9.4)	24(28.2)	28(32.9)	5(5.9)	2(2.4)	2(2.4)
	기혼	7(13.0)	6(11.1)	12(22.2)	22(40.7)	4(7.4)	-	3(5.6)
전체		23(16.5)	14(10.1)	36(25.9)	50(36.0)	9(6.5)	2(1.4)	5(3.6)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노력은 가해자 처벌 강화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24.2%), 피해자의 법적 보호체계 마련(11.2%),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6.6%)로 나타났다.

<표 11-2-21> 연령별 경험유무에 따른 데이트폭력 근절 노력

(단위 : 응답 수, %)

구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의 법적 보호체계 마련	기타	$\chi^2$
연령	25~29세	18(7.2)	56(22.4)	144(57.6)	30(12.0)	2(0.8)	1.565
	30~35세	15(6.0)	65(26.0)	143(57.2)	26(10.4)	1(0.4)	
경험 유무	있음	9(10.5)	24(27.9)	45(52.3)	8(9.3)	-	4.364
	없음	24(5.8)	97(23.4)	242(58.5)	48(11.6)	3(0.7)	
전체		33(6.6)	121(24.2)	287(57.4)	56(11.2)	3(0.6)	-

\* p<.05, \*\*p<.01, \*\*\*p<.001

## 다. 노동과 일자리

### 1) 근로형태

대구지역 청년여성들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57.2%로, 25~29세 64.8%, 30~35세 49.6%이었으며, 주당 근

무시간은 평균 38.5시간이고 최빈값 40시간, 최대 근로시간 95시간, 최소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최소 근로시간의 경우 가족사업 종사자의 경우였다.

고용형태는 72.0%가 정규직으로 25~29세의 74.7%, 30~35세의 68.5%이었으며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은 22.4%로 25~29세 22.2%, 30~35세 22.6%이었다. 기타의 경우 25~29세는 대학원생, 무기계약직, 가족사업, 4대보험 미포함의 형태였으며, 30~35세는 사업, 프리랜서, 가족사업 종사자였다.

정규직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9시간이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33.8시간, 기타 38.6시간이었다. 연령별 고용형태에 따른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5~29세 정규직은 평균 39.8시간, 비정규직은 평균 36.0시간이었으며, 30~35세 정규직은 평균 40.1시간, 비정규직 평균 31.0시간이었다.

<표 II-2-22> 연령별 근로유무 및 고용형태, 평균 근무시간

(단위 : 응답 수,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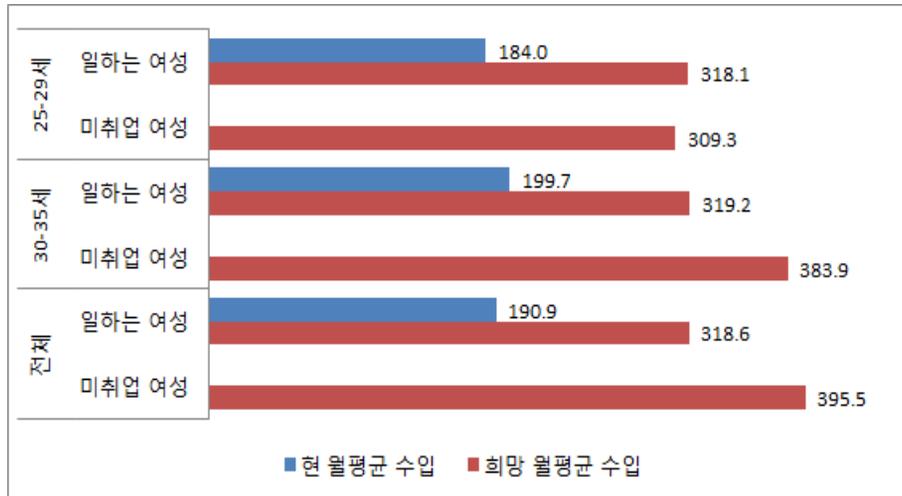
		25~29세	30~35세	전체
근로 유무	일하고 있다	162(64.8)	124(49.6)	286(57.2)
	하고 있지 않다	88(35.2)	124(49.6)	212(42.4)
	기타	-	2(0.8)	2(0.4)
	소계	250(100.0)	250(100.0)	500(100.0)
고용형태	정규직	121(74.7)	85(68.5)	206(72.0)
	비정규직	36(22.2)	28(22.6)	64(22.4)
	기타	5(3.1)	11(8.9)	16(5.6)
	소계	162(100.0)	124(100.0)	286(100.0)
주당평균 근무시간	정규직	39.8	40.1	39.9
	비정규직	36.0	31.0	33.8
	기타	37.6	39.1	38.6
	소계	38.9	38.0	38.5

2015년 대구사회조사에 따르면 20~29세의 43.3%와 30~39세의 36.3%가 개인 소득에 불만족 한다고 나타난 것에 이어 응답자의 현 월평균 수입은 190.9만원, 희망 월평균 수입은 315.3만원으로 희망 월평균이 124.4만원 더 높았다.

25~29세 취업여성의 현 월평균 수입은 184.0만원, 희망 월평균 수입은 318.1만원으로 현 수입과 희망 수입 간의 차는 134.1만원이었다. 25~29세 미취업여성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309.3만원으로 나타났다.

30~35세 취업여성의 현 월평균 수입은 199.7만원, 희망 월평균 수입은 319.2만원으로 현 수입과 희망 수입 간의 차는 119.5만원이었다. 30~35세 미취업여성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383.9만원으로 미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64.7만원 더 높았다.

(단위 : 만원)



[그림 11-2-8] 연령별 취업여부별 현재와 희망 월평균 수입

## 2)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경험 업종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경험은 64.9%로, 업종은 사무보조가 15.0%로 가장 높으며, 고객상담·판매가 12.7%, 카페·베이커리가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5~29세는 사무보조 16.1%, 고객상담·판매 13.1%, 카페·베이커리 11.3% 등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사무보조 13.9%, 고객상담·판매 12.2%, 편의점과 과외가 6.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타 업종의 경우 PC방, 공장, 치과·병원 등 의료, 쇼핑몰, 블로그, 프리랜서 디자인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경험에 해당 없다는 응답은 35.1%로, 25~29세(28.7%), 30~35세(42.0%)로 13.3%p의 차이가 나타나 연령별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23> 연령별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경험 업종

(단위 : 응답 수, %)

	패스트 푸드	주점· 호프	편의점	카페· 베이 커리	(패밀리) 레스 토랑	고객 상담· 판매	사무 보조	과외	기타	해당 없음
25~ 29세	11 (2.9)	15 (4.0)	20 (5.4)	42 (11.3)	29 (7.8)	49 (13.1)	60 (16.1)	28 (7.5)	12 (3.2)	107 (28.7)
30~ 35세	14 (4.1)	13 (3.8)	22 (6.4)	17 (4.9)	15 (4.3)	42 (12.2)	48 (13.9)	22 (6.4)	7 (2.0)	145 (42.0)
전체	25 (3.5)	28 (3.9)	42 (5.8)	59 (8.2)	44 (6.1)	91 (12.7)	108 (15.0)	50 (7.0)	19 (2.6)	252 (35.1)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 3) 취업영향 부문과 일할 기회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관련분야 경력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맥이 30.6%, 출신지 및 출신학교 26.4%, 자격증 26.4%, 학점 및 토익점수 18.6%, 외모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나이, 의지, 혼인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한 연령별 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 경험에 따른 차는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4> 연령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단위 : 응답 수, %)

구분	학점 및 토익 점수	인맥	외모	출신지 및 출신 학교	시험 정보	자격증	자원 봉사 경력	교내 활동 경력	관련 분야 경력	부모의 배경 및 가정 환경	기타
25~ 29세	60 (12.0)	73 (14.6)	32 (6.4)	68 (13.6)	8 (1.6)	64 (12.8)	1 (0.2)	2 (0.4)	148 (29.6)	39 (7.8)	5 (1.0)
30~ 35세	33 (6.6)	80 (16.0)	48 (9.6)	64 (12.8)	10 (2.0)	68 (13.6)	-	6 (1.2)	149 (29.8)	33 (6.6)	9 (1.8)
전체	93 (18.6)	153 (30.6)	80 (16.0)	132 (26.4)	18 (3.6)	132 (26.4)	1 (0.2)	8 (1.6)	297 (59.4)	72 (14.4)	14 (2.8)

주. 1, 2차 조사 응답자들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한편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 기회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다가 55.4%로, 25~29세 54.8%, 30~35세 56.0%이었다. 일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5> 연령별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 기회

(단위 : 응답 수, %)

구분	기회가 없다	보통이다	기회가 많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25~29세	137(54.8)	86(34.4)	27(10.8)	2.51	0.78	1.353
30~35세	140(56.0)	101(40.4)	9(3.6)	2.42	0.67	
전체	277(55.4)	187(37.4)	36(7.2)	2.47	0.73	

주.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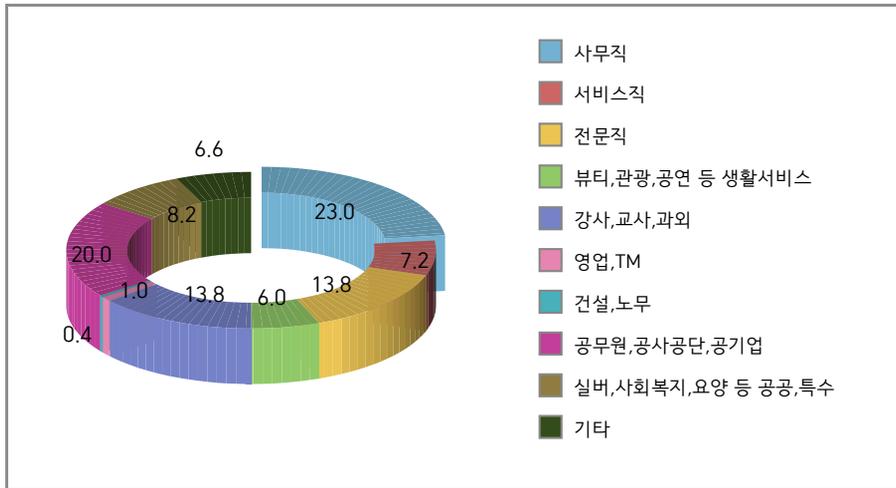
주. 평균값은 5점 척도 활용

\* p<.05, \*\*p<.01, \*\*\*p<.001

#### 4)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는 경리·사무·마케팅 등의 사무직이 2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공사공단·공기업이 20.0%, 번역·통역·경영 컨설팅 등의 전문직과 강사·교사·과외가 13.8%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25~29세는 공무원·공사공단·공기업(23.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21.6%), 전문직(15.2%)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사무직(24.4%), 공무원·공사공단·공기업(16.8%), 강사·교사·과외(16.0%)의 순이었다.

(단위 : %)



[그림 II-2-9]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표 11-2-26> 연령별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단위 : 응답 수, %)

구분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생활 서비스	강사, 교사, 과외	영업, TM	건설, 노무	공무원, 공사, 공단, 공기업	공공, 특수	기타	$\chi^2$
25~29세	54 (21.6)	15 (6.0)	38 (15.2)	15 (6.0)	29 (11.6)	2 (0.8)	1 (0.4)	58 (23.2)	18 (7.2)	20 (8.0)	8.744
30~35세	61 (24.4)	21 (8.4)	31 (12.4)	15 (6.0)	40 (16.0)	3 (1.2)	1 (0.4)	42 (16.8)	23 (9.2)	13 (5.2)	
전체	115 (23.0)	36 (7.2)	69 (13.8)	30 (6.0)	69 (13.8)	5 (1.0)	2 (0.4)	100 (20.0)	41 (8.2)	33 (6.6)	

\* p<.05, \*\*p<.01, \*\*\*p<.001

## 라. 대구와 정책

### 1) 대구의 특성

대구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여성들이 생각하는 대구의 이미지는 보수적인 도시(40.5%), 폐쇄적인 도시(18.8%), 교육 도시(13.9%), 문화 도시(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적인 도시(40.5%)와 반대되는 개념인 진취적인 도시는 1.5%로 39.0%p의 차가, 폐쇄적인 도시(18.8%)와 반대되는 개념인 개방적인 도시는 1.1%로 17.7%p의 차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남성적인 도시(5.7%)와 여성적인 도시(0.8%) 간에는 4.9%p의 차이가 났다. 한편, 기타(2.9%)는 소비도시, 정체된 도시, 더운 도시(대프리카), 패션도시(컬러풀 대구), 쇠퇴하고 있는 도시, 메디시티, 물가와 인건비가 저렴한 도시, 일자리 부족·낮은 임금 도시 등이었다.

<표 II-2-27> 연령별 대구 이미지

(단위 : 응답 수, %)

구분	개방 적인 도시	보수 적인 도시	진취 적인 도시	폐쇄 적인 도시	남성 적인 도시	여성 적인 도시	녹색 도시	교육 도시	청년 도시	문화 도시	기타
25~ 29세	7 (1.4)	196 (39.2)	4 (0.8)	98 (19.6)	30 (6.0)	4 (0.8)	19 (3.8)	77 (15.4)	7 (1.4)	42 (8.4)	16 (3.2)
30~ 35세	4 (0.8)	209 (41.8)	11 (2.2)	90 (18.0)	27 (5.4)	4 (0.8)	30 (6.0)	62 (12.4)	5 (1.0)	45 (9.0)	13 (2.6)
전체	11 (1.1)	405 (40.5)	15 (1.5)	188 (18.8)	57 (5.7)	8 (0.8)	49 (4.9)	139 (13.9)	12 (1.2)	87 (8.7)	29 (2.9)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청년여성이 체감하는 대구지역의 평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등하지 않다는 응답이 67.0%였으며, 평등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 68.4%, 30~35세 65.6%로 청년여성들은 대구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8> 연령별 대구 평등 정도

(단위 : 응답 수, %)

구분	평등하지 않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25~29세	171(68.4)	69(27.6)	10(4.0)	2.19	0.77	.391
30~35세	164(65.6)	76(30.4)	10(4.0)	2.16	0.83	
전체	335(67.0)	145(29.0)	20(4.0)	2.17	0.80	

주.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재구성함

주. 평균값은 5점 척도 활용

\* p<.05, \*\*p<.01, \*\*\*p<.001

## 2) 청년유출

2016년 대구사회조사에 따르면 인구 유출의 주 연령대는 20대 청년층으로 2005년부터 최근 11년간 순유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유출 현상에 대하여 응답자들에게 그에 대한 생각과 원인, 방지 정책에 관해 물어본 결과, 청년유출 현상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81.8%로 10명 중 8명이 이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25~29세 82.8%, 30~35세 80.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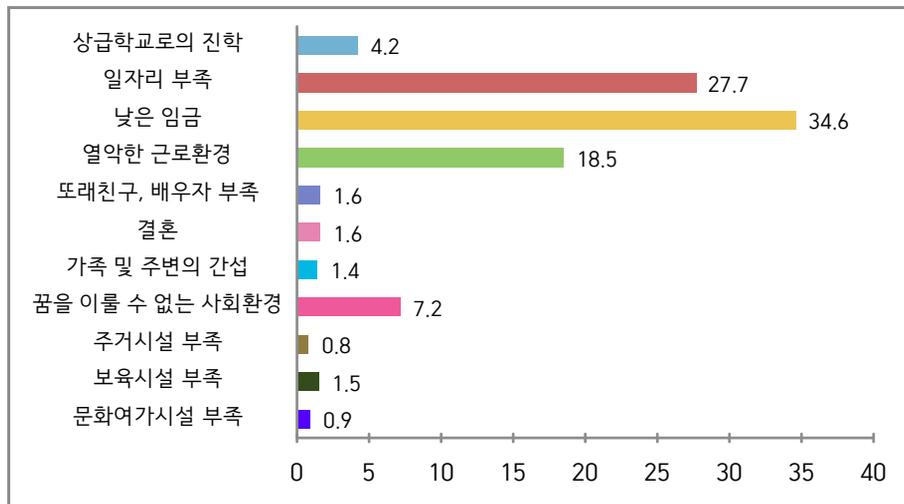
<표 II-2-29> 연령별 청년유출 현상에 대한 생각

(단위 : 응답 수, %)

구분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25~29세	8(3.2)	29(11.6)	207(82.8)	6(2.4)
30~35세	3(1.2)	30(12.0)	202(80.8)	15(6.0)
전체	11(2.2)	59(11.8)	409(81.8)	21(4.2)

청년유출 현상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이 27.7%, 열악한 근로환경 18.5%,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환경 7.2%로 대부분이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부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위 : %)



[그림 II-2-10] 대구 청년 유출 원인

<표 11-2-30> 연령별 대구 청년 유출 원인

(단위 : 응답 수, %)

구분	상급 학교로의 진학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또래 친구·배우자 부족	결혼	가족 및 주변의 간섭	꿈을 이룰수 없는 사회 환경	주거 시설 부족	보육 시설 부족	문화 여가 시설 부족
25~29세	18 (3.6)	135 (27.3)	178 (36.0)	99 (20.0)	7 (1.4)	10 (2.0)	5 (1.0)	29 (5.9)	4 (0.8)	4 (0.8)	5 (1.0)
30~35세	23 (4.7)	138 (28.0)	163 (33.1)	83 (16.9)	9 (1.8)	6 (1.2)	9 (1.8)	42 (8.5)	4 (0.8)	11 (2.2)	4 (0.8)
전체	41 (4.2)	273 (27.7)	341 (34.6)	182 (18.5)	16 (1.6)	16 (1.6)	14 (1.4)	71 (7.2)	8 (0.8)	15 (1.5)	9 (0.9)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따라서 대구시 청년 유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환경 개선(41.2%), 성별임금격차 해소(15.5%), 경력단절 예방(1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청년 유출 원인이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부분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출 방지 정책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15.5%로 나타난 가운데 25~29세가 성별임금격차 해소(17.9%)를 응답한 경우가 30~35세보다 4.9%p 더 높았으며, 30~35세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11.0%)이 25~29세보다 1.4%p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여부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19.8%, 경력단절 예방 7.1%이었으며 기혼은 경력단절 예방 13.8%,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10.6%로 나타났다.

<표 11-2-31> 연령별 혼인여부별 대구 청년 유출 방지 정책

(단위 : 응답 수,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연령	25~29세	205 (41.8)	16 (3.3)	19 (3.9)	88 (17.9)	47 (9.6)	20 (4.1)	23 (4.7)	21 (4.3)	26 (5.3)	20 (4.1)	5 (1.0)	1 (0.2)
	30~35세	200 (40.7)	22 (4.5)	14 (2.8)	64 (13.0)	54 (11.0)	34 (6.9)	21 (4.3)	31 (6.3)	32 (6.5)	13 (2.6)	5 (1.0)	2 (0.4)
혼인여부	미혼	231 (44.5)	19 (3.7)	19 (3.7)	103 (19.8)	37 (7.1)	18 (3.5)	24 (4.6)	31 (6.0)	9 (1.7)	22 (4.2)	4 (0.8)	2 (0.4)
	기혼	174 (37.5)	19 (4.1)	14 (3.0)	49 (10.6)	64 (13.8)	36 (7.8)	20 (4.3)	21 (4.5)	49 (10.6)	11 (2.4)	6 (1.3)	1 (0.2)
전체		405 (41.2)	38 (3.9)	33 (3.4)	152 (15.5)	101 (10.3)	54 (5.5)	44 (4.5)	52 (5.3)	58 (5.9)	33 (3.4)	10 (1.0)	3 (0.3)

- ①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 ② 지역대학활성화
- ③ 인턴십 기회 제공
- ④ 성별 임금격차 해소
- ⑤ 경력단절예방
- ⑥ 일가정양립 지원
- ⑦ 생계비 지원
- ⑧ 주거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⑨ 보육환경개선
- ⑩ 문화여가시설확충
- ⑪ 범죄로부터 안전사회 구현
- ⑫ 기타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 3) 청년·여성정책

응답자들에게 2017년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일부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년정책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평균 80.7%로 안다는 응답에 비해 76.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15.2%), 대구청년센터(3.4%), 대구시 청년위원회(3.4%), 청년정책기자단(3.2%), 대구청년주간(2.4%), 청년 Job-Go 프로젝트(2.0%), 소셜픽션 청년대구(1.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ON’(1.2%) 순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의 경우 대구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업인 것에 반해 25~29세의 22.0%가 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2017년 기준 3기를 배출한 대구시 청년위원회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81.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경우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22.0%), 대구시 청년위원회(4.4%), 대구청년센터(4.4%), 청년정책기자단(3.6%)의 순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35세는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8.4%), 청년정책기자단(2.8%), 대구시 청년위원회(2.4%), 대구청년센터(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청년정책에 대해 30~35세보다 25~29세의 인지도가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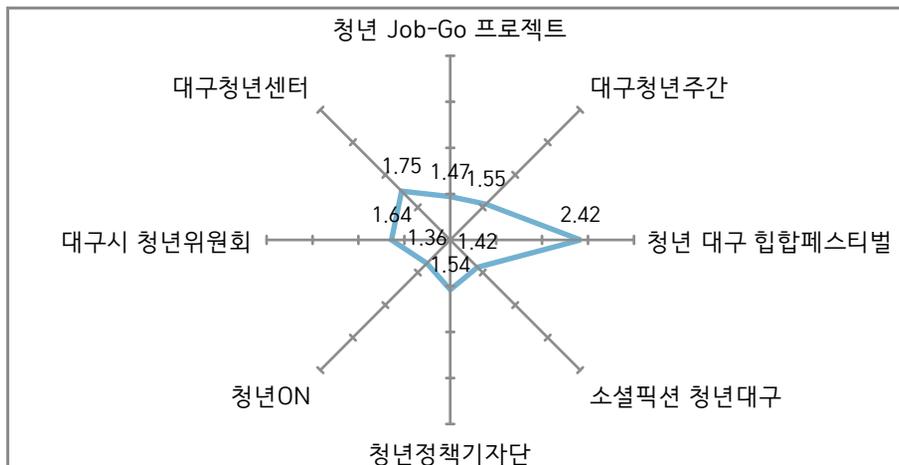
다. 성별 분석결과는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2> 연령별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정도

(단위 : 응답 수, %)

구분		25~29세	30~35세	전체
청년 Job-Go 프로젝트	모른다	218(87.2)	219(87.6)	437(87.4)
	들어본 적 있다	26(10.4)	27(10.8)	53(10.6)
	안다	6(2.4)	4(1.6)	10(2.0)
대구청년주간	모른다	205(82.0)	217(86.8)	422(84.4)
	들어본 적 있다	37(14.8)	29(11.6)	66(13.2)
	안다	8(3.2)	4(1.6)	12(2.4)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	모른다	93(37.2)	138(55.2)	231(46.2)
	들어본 적 있다	102(40.8)	91(36.4)	193(38.6)
	안다	55(22.0)	21(8.4)	76(15.2)
소셜픽션 청년대구	모른다	227(90.8)	237(94.8)	464(92.8)
	들어본 적 있다	18(7.2)	10(4.0)	28(5.6)
	안다	5(2.0)	3(1.2)	8(1.6)
청년정책기자단	모른다	207(82.8)	222(88.8)	429(85.8)
	들어본 적 있다	34(13.6)	21(8.4)	55(11.0)
	안다	9(3.6)	7(2.8)	16(3.2)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ON'	모른다	230(92.0)	236(94.4)	466(93.2)
	들어본 적 있다	16(6.4)	12(4.8)	28(5.6)
	안다	4(1.6)	2(0.8)	6(1.2)
대구시 청년위원회	모른다	199(79.6)	207(82.8)	406(81.2)
	들어본 적 있다	40(16.0)	37(14.8)	77(15.4)
	안다	11(4.4)	6(2.4)	17(3.4)
대구청년센터	모른다	182(72.8)	190(76.0)	372(74.4)
	들어본 적 있다	57(22.8)	54(21.6)	111(22.2)
	안다	11(4.4)	6(2.4)	17(3.4)

주.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재구성함



[그림 II-2-11]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정도

<표 II-2-33> 연령별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정도 평균값 비교

구분	연령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청년 Job-Go 프로젝트	25~29세	1.17	0.81	.057
	30~35세	1.46	0.77	
	전체	1.47	0.79	
대구청년주간	25~29세	1.60	0.88	1.279
	30~35세	1.50	0.79	
	전체	1.55	0.84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	25~29세	2.67	1.18	5.060***
	30~35세	2.16	1.06	
	전체	2.42	1.15	
소셜픽션 청년대구	25~29세	1.45	0.77	1.139
	30~35세	1.38	0.64	
	전체	1.42	0.71	
청년정책기자단	25~29세	1.61	0.90	1.916
	30~35세	1.46	0.78	
	전체	1.54	0.84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ON'	25~29세	1.38	0.73	.657
	30~35세	1.34	0.63	
	전체	1.36	0.68	
대구시 청년위원회	25~29세	1.70	0.97	1.426
	30~35세	1.58	0.84	
	전체	1.64	0.91	
대구청년센터	25~29세	1.82	0.98	1.552
	30~35세	1.69	0.92	
	전체	1.75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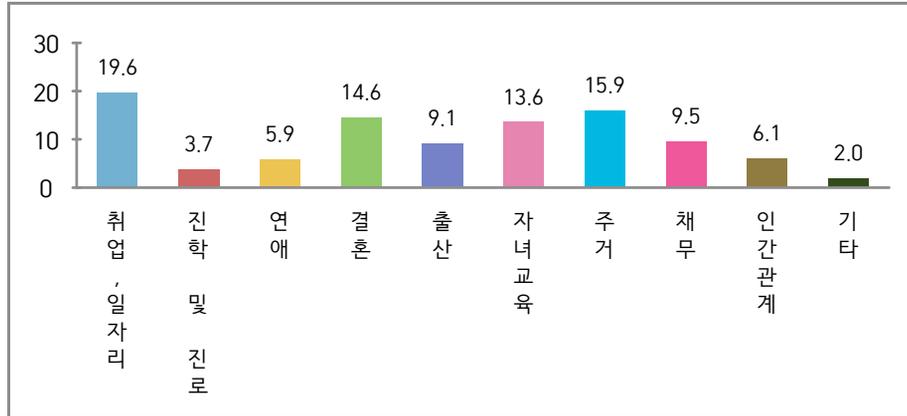
주. 평균값은 5점 척도 활용

\* p<.05, \*\*p<.01, \*\*\*p<.001

현 대구 청년정책의 대상자인 응답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취업·일자리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주거(집)이 15.9%, 결혼이 14.6%, 자녀교육이 13.6%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는 취업·일자리(24.5%), 결혼(19.5%), 주거(집)(13.2%)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자녀교육(23.2%), 주거(집)(18.6%), 취업, 일자리(14.6%)의 순이었다. 한편 혼인여부로 살펴본 결과 미혼은 결혼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일자리 24.0%, 주거(집)이 12.8%, 연애가 10.1%의 순이었으며, 기혼(이혼 포함)의 경우 자녀교육이 29.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거(집)이 19.5%, 취업·일자리가 14.3%, 채무(빚)이 13.2%의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취업·일자리는 연령과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25~35세 청년여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25~29세의 미혼 여성들은 결혼, 30~35세의 기혼 여성들은 자녀교육을 가장 많이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2-12] 고민 부문

<표 II-2-34> 연령별 혼인여부별 고민 부문

(단위 : 응답 수, %)

구분		취업·일자리	진학 및 진로	연애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주거 (집)	채무 (빚)	인간 관계	기타
연령	25~29세	119 (24.5)	27 (5.6)	42 (8.6)	95 (19.5)	38 (7.8)	20 (4.1)	64 (13.2)	33 (6.8)	40 (8.2)	8 (1.6)
	30~35세	70 (14.6)	9 (1.9)	15 (3.1)	46 (9.6)	50 (10.4)	111 (23.2)	89 (18.6)	59 (12.3)	19 (4.0)	11 (2.3)
혼인여부	미혼	126 (24.0)	30 (5.7)	53 (10.1)	138 (26.3)	19 (3.6)	1 (0.2)	67 (12.8)	34 (6.5)	47 (9.0)	9 (1.7)
	기혼 (이혼)	63 (14.3)	6 (1.4)	4 (0.9)	3 (0.7)	69 (15.6)	130 (29.5)	86 (19.5)	58 (13.2)	12 (2.7)	10 (2.3)
전체		189 (19.6)	36 (3.7)	57 (5.9)	141 (14.6)	88 (9.1)	131 (13.6)	153 (15.9)	92 (9.5)	59 (6.1)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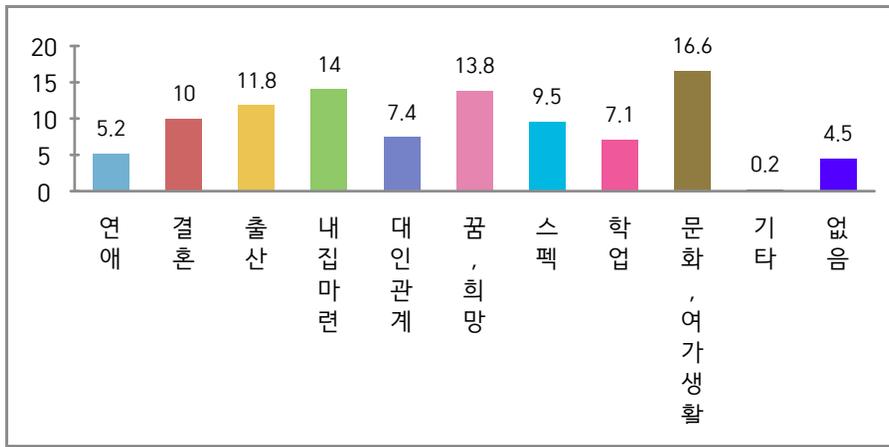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이어 응답자들이 가장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여가생활(16.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내집마련(14.0%), 꿈·희망(13.8%), 출산(11.8%), 결혼(10.0%)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는 내집마련(16.7%), 꿈·희망(13.5%), 문화·여가생활(12.9%)의 순이었으며, 30~35세는 문화·여가생활(20.8%), 꿈·희망(14.2%), 출산(11.0%)이었다. 다음으로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내

집마련(16.2%), 결혼(15.6%), 출산(14.0%), 꿈·희망(11.9%)의 순이었으며, 기혼(이혼, 별거, 사별 포함)은 문화·여가생활(27.5%), 꿈·희망(16.9%), 스펙(10.6%), 내 집마련(10.4%)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여가생활을 가장 많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내집마련, 꿈·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다. 또한 미혼의 경우 결혼과 출산을, 기혼의 경우 꿈·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2-13] 포기 부문

<표 II-2-35> 연령별 혼인여부별 포기 부문

(단위 : 응답 수, %)

		연애	결혼	출산	내 집마련	대인관계	꿈·희망	스펙	학업	문화·여가생활	기타	없음
연령	25~29세	44 (6.2)	89 (12.5)	89 (12.5)	119 (16.7)	44 (6.2)	96 (13.5)	70 (9.8)	45 (6.3)	92 (12.9)	-	24 (3.4)
	30~35세	25 (4.0)	44 (7.1)	68 (11.0)	67 (10.8)	55 (8.9)	88 (14.2)	57 (9.2)	49 (7.9)	129 (20.8)	2 (0.3)	36 (5.8)
혼인여부	미혼	65 (7.9)	128 (15.6)	115 (14.0)	133 (16.2)	47 (5.7)	98 (11.9)	73 (8.9)	52 (6.3)	81 (9.8)	-	31 (3.8)
	기혼	4 (0.8)	5 (1.0)	42 (8.3)	53 (10.4)	52 (10.2)	86 (16.9)	54 (10.6)	42 (8.3)	140 (27.5)	2 (0.4)	29 (5.7)
전체		69 (5.2)	133 (10.0)	157 (11.8)	186 (14.0)	99 (7.4)	184 (13.8)	127 (9.5)	94 (7.1)	221 (16.6)	2 (0.2)	60 (4.5)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한편, 응답자들에게 대구시의 청년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34.3%가 취업·구직이라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 보육·교육(16.7%), 주거(14.7%), 임신·출산(14.5%), 연애·결혼(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구직은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대구시 청년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령별, 혼인여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25~29세의 경우 주거(15.4%), 임신·출산(13.9%) 등인 반면 30~35세는 자녀 보육·교육(20.9%), 임신·출산(15.0%)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서도 미혼은 주거(16.5%), 연애·결혼(14.0%) 등인 반면 기혼은 자녀 보육·교육(24.3%), 임신·출산(17.6%)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2-36> 연령별 혼인여부별 대구 청년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

(단위 : 응답 수, %)

		취업·구직	주거	건강	연애·결혼	인간관계	임신·출산	자녀보육·교육	기타
연령	25~29세	172 (35.8)	74 (15.4)	42 (8.7)	51 (10.6)	14 (2.9)	67 (13.9)	60 (12.5)	1 (0.2)
	30~35세	160 (32.9)	68 (14.0)	25 (5.1)	51 (10.5)	6 (1.2)	73 (15.0)	102 (20.9)	2 (0.4)
혼인여부	미혼	183 (36.0)	84 (16.5)	46 (9.1)	71 (14.0)	12 (2.4)	59 (11.6)	50 (9.8)	3 (0.6)
	기혼	149 (32.4)	58 (12.6)	21 (4.6)	31 (6.7)	8 (1.7)	81 (17.6)	112 (24.3)	-
계		332 (34.3)	142 (14.7)	67 (6.9)	102 (10.5)	20 (2.1)	140 (14.5)	162 (16.7)	3 (0.3)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그럼으로 청년여성들이 바라는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여성정책으로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문화 조성(일·가정 양립환경)’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이 16.3%, ‘공공 보육시설 확대’가 15.9%, ‘지역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13.1%, ‘나홀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이 1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두 연령대 모두 1, 2순위에서는 동일한 순위를 보였으나 3순위가 25~29세는 ‘미취업여성의 경력 개발 및 취업지원(17.8%)’, 30~35세는 ‘공공 보육시설 확대(18.4%)’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 따라서도 동일한 순서를 보였으나 미혼의 경우 ‘나홀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이 14.4%, 기혼의 경우 ‘공공 보육시설 확대’가 25.3%로 나타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표 II-2-37> 연령별 혼인여부별 대구시 희망 여성정책

(단위 : 응답 수,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연령	25~29세	60(12.0)	180(36.0)	89(17.8)	72(14.4)	32(6.4)	67(13.4)	-
	30~35세	42(8.4)	197(39.4)	74(14.8)	59(11.8)	34(6.8)	92(18.4)	2(0.4)
혼인 여부	미혼	78(14.4)	197(36.3)	104(19.2)	81(14.9)	38(7.0)	43(7.9)	1(0.2)
	기혼	24(5.2)	180(39.3)	59(12.9)	50(10.9)	28(6.1)	116(25.3)	1(0.2)
전체		102(10.2)	377(37.7)	163(16.3)	131(13.1)	66(6.6)	159(15.9)	2(0.2)

- ① 나홀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    ②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문화조성(일·가정양립환경)  
 ③ 미취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④ 지역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⑤ 성폭력,성매매,미혼모등피해여성상담및보호시설확충    ⑥ 공공 보육시설 확대  
 ⑦ 기타

주. 1·2 순위형 응답으로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더 나아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 청년배당 등의 이름으로 해당 지역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에 관해 대구시에서도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청년 유출 방지 정책에서도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4.5%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수당 및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62.4%로, 필요하지 않다가 17.6%로 나타났다. 25~29세의 경우 6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30~35세는 그보다 8%p 작은 58.4%로 나타났다. 특히 30~35세의 19.6%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20대가 청년수당 및 배당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38> 연령별 청년수당 및 배당정책 필요성

(단위 : 응답 수, %)

구분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연령	25~29세	39(15.6)	41(16.4)	166(66.4)	4(1.6)
	30~35세	49(19.6)	46(18.4)	146(58.4)	9(3.6)
전체		88(17.6)	87(17.4)	312(62.4)	13(2.6)



---

## 대구 시민 양성평등 및 협오 의식조사



## 1. 조사개요

최근 여성혐오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 온라인상의 성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 시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을 살펴보고 혐오 및 여성혐오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성평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구 시민 양성평등 의식 조사는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대구의 양성평등 점수,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연령, 성인지 수준, 남녀 갈등 정도, 대구에서 차별 받은 경험 등의 양성평등 의식 및 실태와 더불어 혐오표현 인식정도와 혐오표현 유형의 경험 정도,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여성혐오 현상의 전망과 여성혐오 인식 실태를 파악하였다.

### 가. 조사방법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2017년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1:1 대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  $\pm 4.2\%$ 로 95%의 신뢰수준을 가진다.

조사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양성평등 점수, 대구에서 살기 좋은 연령, 성인지 수준, 남녀 갈등 정도, 대구에서 차별 받은 경험,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 혐오표현의 경험, 혐오표현 유형의 경험,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여성혐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최근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여성혐오 현상의 전망, 관련 법조항 제정 시 포함될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김수아·허다운(2014), 안상수 외 3인(2015), 안상수 외 2인(2016), 홍성수 외 6인(2016), 박아란·양정애(2016), 광지영 외 2인(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표 III-1-1> 조사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소득
양성평등 부문	양성평등 점수, 대구에서 살기 좋은 연령, 성인지 수준, 우리나라 남녀 갈등 정도, 대구 남녀 갈등 정도, 대구에서 차별받은 경험,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
혐오 부문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유형 경험,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여성혐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최근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여성혐오 현상의 사회적 전망, 관련 법조항 제정 시 포함될 대상

## 나. 조사대상

조사는 대구거주 만 19세 이상의 20~60대의 일반시민(성별, 연령별 할당)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의 불성실 등을 제외하고 554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의 구성은 여성 52.5%, 남성 47.5%이고 연령대는 20대 이하 19.5%, 30대 22.2%, 40대 18.6%, 50대 20.9%, 60대 이상 18.8%이다. 남성 중 군대를 다녀온 유형은 현역이 81.4%로 가장 많았으며, (특례)보충역·사회복무요원(8.0%), 면제 (6.8%), 입대 전 (3.8%)의 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32.7%, 기혼 67.3%로, 기혼(유배우) 65.0%, 이혼 0.5%, 사별 1.6%, 별거 0.2%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교(26.7%), 기독교 (17.3%), 천주교 (9.2%), 기타 (1.6%), 불교 (0.2%)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56.0%), 고등학교 졸업(19.9%), 대학교 휴/재학 (11.9%), 중학교 졸업 이하(6.1%), 대학원 졸업 이상(5.1%), 대학원 휴/재학 (1.1%)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2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17.3%), 서비스/판매 종사자(14.6%), 학생(10.8%), 취업준비생/무직, 관리자/전문가(각 10.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3%), 단순기능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각 1.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0.7%), 직업군인(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소득은 101~200만원 2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300만원(18.6%), 301~400만원(17.5%), 401~500만원(11.0%), 100만원 이하

(10.8%), 501만원 이상(7.6%)의 순이었다.

<표 III-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특 성		빈도	비율
성별	여성	291	52.5
	남성	263	47.5
복무유형	입대 전	10	3.8
	현역	214	81.4
	(특례)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1	8.0
	면제	18	6.8
연령대	20대 이하	108	19.5
	30대	123	22.2
	40대	103	18.6
	50대	116	20.9
	60대 이상	104	18.8
혼인상태	미혼	181	32.7
	기혼(유배우)	360	65.0
	이혼	3	0.5
	사별	9	1.6
	별거	1	0.2
종교	천주교	51	9.2
	기독교	96	17.3
	불교	148	26.7
	원불교	1	0.2
	무교	249	44.9
	기타	9	1.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4	6.1
	고등학교 졸업	110	19.9
	대학교 휴/재학	66	11.9
	대학교 졸업	310	56.0
	대학원 휴/재학	6	1.1
	대학원 졸업 이상	28	5.1

특 성		빈도	비율
직업	학생	60	10.8
	취업준비생/무직	58	10.5
	전업주부	96	17.3
	관리자/전문가	58	10.5
	사무직 종사자	122	22.0
	서비스/판매 종사자	81	1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	0.7
	단순기능 종사자	10	1.8
	단순노무 종사자	10	1.8
	직업군인	1	0.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	2.3
기타	41	7.4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60	10.8
	101~200만원	120	21.7
	201~300만원	103	18.6
	301~400만원	97	17.5
	401~500만원	61	11.0
	501만원 이상	42	7.6
	해당사항 없음	71	12.8
전체	554	100.0	

## 2. 조사결과

### 가. 양성평등 의식과 갈등

#### 1) 양성평등 의식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56점)보다는 남성(6.71점)이 대구의 양성평등 점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등하다는 정도가 높았다. 미혼(6.07점)인 경우보다 기혼(6.16점)일 때 남녀평등에 정도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으나, 이혼(3.33점)한 응답자의 경우 매우 낮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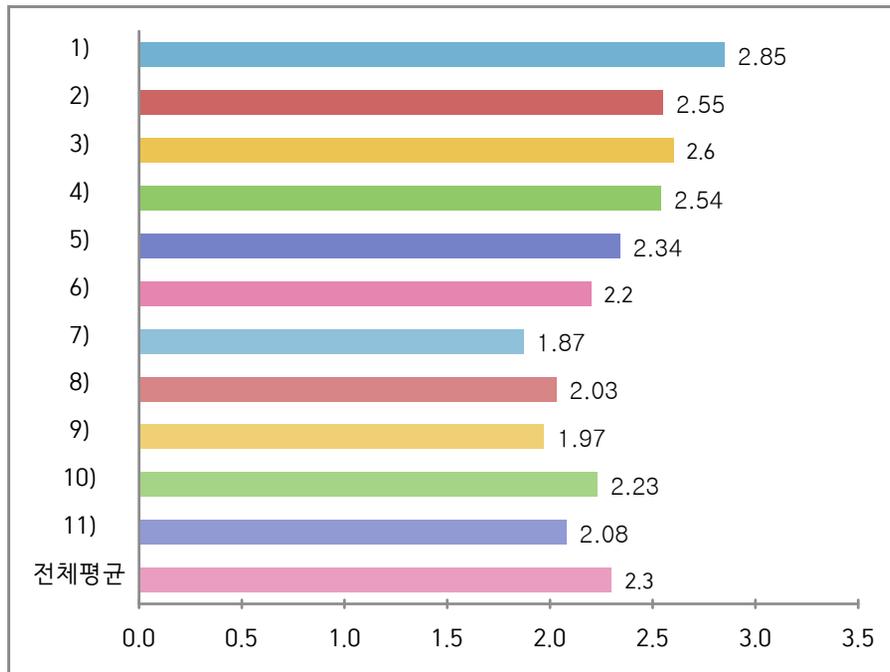
<표 III-2-1> 대구 양성평등 정도

(단위 : 점)

구 분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
		평균
성별	여성	5.56
	남성	6.71
연령	20대 이하	6.02
	30대	6.10
	40대	6.17
	50대	6.06
	60대 이상	6.20
혼인상태	미혼	6.07
	기혼(유배우)	6.16
	이혼	3.33
	사별	5.63
	별거	5.00
계		6.11

응답자들은 대구가 비교적 양성평등한 도시라고 인식한 것에 이어 응답자 개인의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2.30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성평등 의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자는 밤늦게 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2.8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서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2.60점)’, ‘남성보다 여성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2.55점)’, ‘남성은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2.54점)’,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2.34점)’, ‘여성이 잘되는 길은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다(2.23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여성은 굳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2.20점)’,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2.08점)’,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2.03점)’ 등의 순이었다. 다시 말해 ‘여자는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에 가장 동의하였으며,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의식 수준은 남성이 전체 평균 2.45점으로 여성에 비해 0.29점 높아 여성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각 항목에 대한 ‘남녀 간의 차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의 차 0.54점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의 차는 0.48점p,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와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의 차 0.37점p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져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분석결과는 여자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고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성평등 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결과는 모든 성평등 의식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1] 성평등 의식 평균

- 1) 여자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
- 2) 남성보다 여성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 3)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4) 남성은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
- 5)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 6)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여성은 굳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 7) 여자가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녀양육은 부인의 책임이다
- 8)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
- 9)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 10) 여성이 잘되는 길은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다
- 11)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주. 성평등 인식 : <3.0일 경우 성평등 의식 높음으로, >3.0일 성평등 의식 낮음으로 계산

<표 III-2-2> 성별 연령별 성평등 의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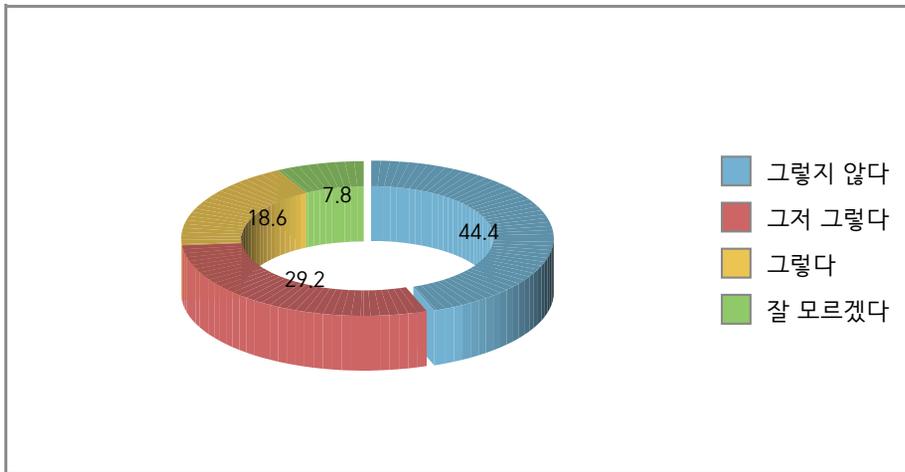
구분	여자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양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2.78	1.21	-1.597	2.49	1.21	-1.188	2.42	1.11	-3.863***
	남성	2.94	1.18		2.61	1.17		2.79	1.18	
연령	20대이하	2.39	1.17	12.780***	1.99	0.96	15.713***	2.05	0.93	19.356***
	30대	2.51	1.21		2.30	1.17		2.28	1.14	
	40대	3.00	1.20		2.58	1.22		2.67	1.17	
	50대	3.16	1.05		2.78	1.15		2.81	1.16	
	60대이상	3.26	1.11		3.12	1.14		3.23	1.03	
전체	2.85	1.20	-	2.55	1.19	-	2.60	1.16	-	
구분	남성은 업무계획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여성은 굳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2.37	1.03	-4.075***	2.11	0.99	-5.274***	2.09	1.09	-2.291*
	남성	2.74	1.10		2.59	1.09		2.31	1.14	
연령	20대이하	2.16	0.98	9.936***	1.88	0.89	16.595***	2.13	1.05	6.090***
	30대	2.4	1.09		2.16	1.06		2.15	1.03	
	40대	2.53	1.02		2.33	1.01		2.02	1.16	
	50대	2.61	1.09		2.41	0.99		2.04	0.94	
	60대이상	3.03	1.04		2.96	1.09		2.66	1.31	
전체	2.54	1.08	-	2.34	1.07	-	2.20	1.12	-	
구분	여자가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녀양육은 부인의 책임이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1.73	1.04	-3.351***	2.02	1.10	-.347	1.79	0.96	-4.041***
	남성	2.02	1.05		2.05	1.07		2.16	1.15	
연령	20대이하	1.50	0.83	12.863***	1.77	0.91	8.490***	1.60	0.87	13.525***
	30대	1.62	0.91		1.76	0.97		1.77	1.05	
	40대	1.79	1.00		1.98	1.07		1.94	1.04	
	50대	2.14	1.13		2.28	1.14		2.00	1.00	
	60대이상	2.32	1.16		2.39	1.17		2.57	1.14	
전체	1.87	1.05	-	2.03	1.08	-	1.97	1.07	-	
구분	여성이 잘 되는 길은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전체평균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2.13	1.12	-2.064*	1.83	1.04	-5.472***	2.16	0.76	-4.339***
	남성	2.34	1.21		2.37	1.26		2.45	0.80	
연령	20대이하	1.72	0.99	19.118***	1.65	0.91	15.800***	1.89	0.67	27.062***
	30대	1.90	1.07		1.83	1.00		2.07	0.74	
	40대	2.17	1.13		1.94	1.09		2.27	0.77	
	50대	2.57	1.12		2.32	1.28		2.46	0.69	
	60대이상	2.83	1.18		2.73	1.29		2.83	0.76	
전체	2.23	1.17	-	2.08	1.18	-	2.30	0.79	-	

주. 5점 척도로 구성되어 <3이면 성평등 의식 높음, >3이면 성평등 의식 낮음으로 계산  
 주.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표 III-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성평등 의식 정도는 3점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폐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한편, 대구가 양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44.4%, 그저 그렇다 29.2%, 잘 모르겠다 7.8%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8.8%p 높았으며, 50대 이하의 대구가 양성평등한 도시가 아니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I-2-2] 대구가 양성평등 도시인가에 대한 생각

<표 III-2-3> 성별 연령별 대구가 양성평등 도시인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성별	여성	169(58.1)	79(27.1)	31(10.7)	12(4.1)
	남성	77(29.3)	83(31.6)	72(27.4)	31(11.8)
연령	20대 이하	48(44.4)	31(28.7)	16(14.8)	13(12.0)
	30대	60(48.8)	32(26.0)	18(14.6)	13(10.6)
	40대	55(53.4)	27(26.2)	19(18.4)	2(1.9)
	50대	50(43.1)	35(30.2)	25(21.6)	6(5.2)
	60대 이상	33(31.7)	37(35.6)	25(24.0)	9(8.7)
전체	246(44.4)	162(29.2)	103(18.6)	43(7.8)	

## 2) 남녀갈등과 차별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가 54.2%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62.5%로 남성(44.9%)보다 17.6%p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50%에 머물렀다. 이어서 대구지역의 남녀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그렇다가 68.4%로 남성(45.2%)에 비해 23.2%p 높았으며 50대가 그렇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이였다. 성별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녀갈등 심각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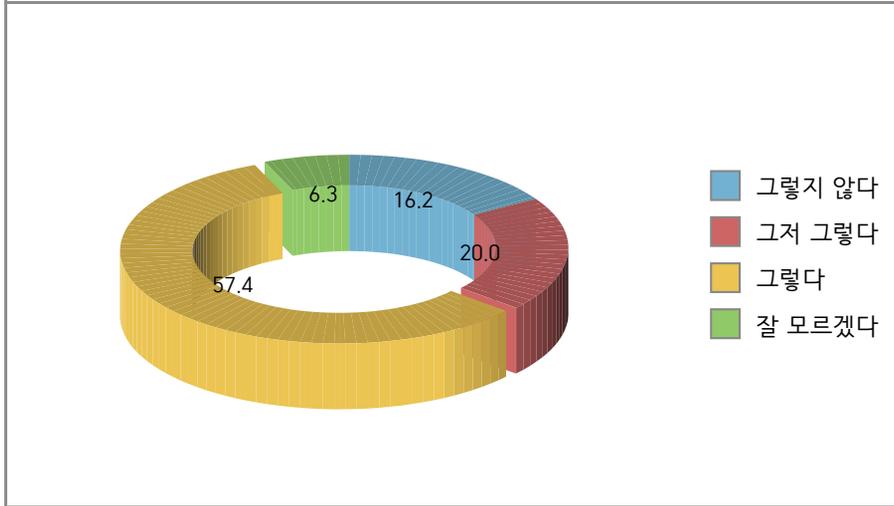
<표 III-2-4> 성별 연령별 우리나라의 남녀갈등 심각성

(단위 : 명, %)

구분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심각하다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31(10.7)	78(26.8)	182(62.5)	3.57	0.79	5.109***
	남성	69(26.2)	76(28.9)	118(44.9)	3.19	0.93	
연령	20대 이하	14(13.0)	34(31.5)	60(55.6)	3.46	0.84	1.757
	30대	15(12.2)	40(32.5)	68(55.3)	3.47	0.79	
	40대	19(18.4)	23(22.3)	61(59.2)	3.47	0.89	
	50대	28(24.1)	29(25.0)	59(50.9)	3.29	0.95	
	60대 이상	24(23.1)	28(26.9)	52(50.0)	3.24	0.91	
전체		100(18.1)	154(27.8)	300(54.2)	3.39	0.88	-

\* p<.05, \*\*p<.01, \*\*\*p<.001

(단위 : %)



[그림 III-2-3] 대구에 남녀갈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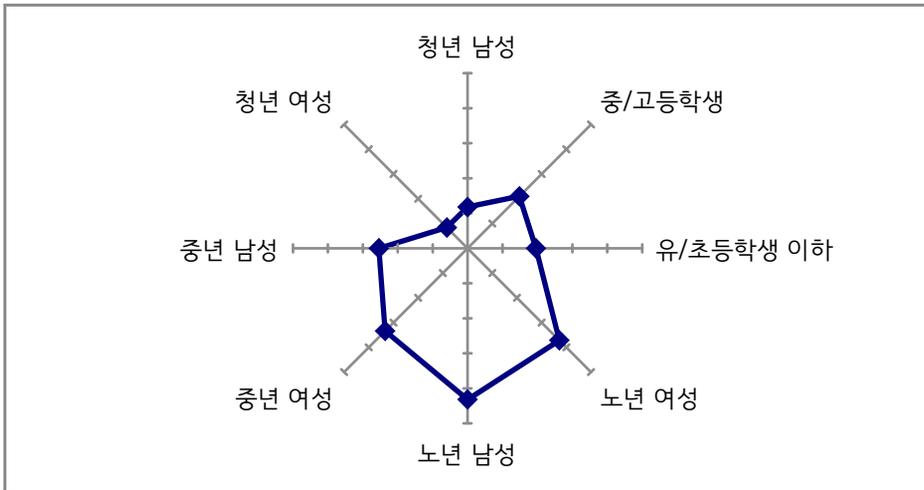
<표 III-2-5> 성별 연령별 대구의 남녀갈등 존재 여부

(단위 : 명, %)

구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성별	여성	27(9.3)	55(18.9)	199(68.4)	10(3.4)
	남성	63(24.0)	56(21.3)	119(45.2)	25(9.5)
연령	20대 이하	25(23.1)	21(19.4)	50(46.3)	12(11.1)
	30대	18(14.6)	27(22.0)	68(55.3)	10(8.1)
	40대	17(16.5)	13(12.6)	70(68.0)	3(2.9)
	50대	12(10.3)	20(17.2)	79(68.1)	5(4.3)
	60대 이상	18(17.3)	30(28.8)	51(49.0)	5(4.8)
전체		90(16.2)	111(20.0)	318(57.4)	35(6.3)

대구에는 누구에게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인가에 대해 노년 남성이 21.6%, 노년 여성이 18.6%, 중년 여성이 16.7%, 중년 남성이 12.7%, 중/고등학생 10.5%, 유/초등학생 이하 9.8%로 청년층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노년 여성이 2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년 남성(21.0%), 중년 여성(15.6%), 중년 남성(15.3%)의 순이었으며 남성은 노년 남성(22.3%), 중년 여성(18.0%), 노년 여성(14.7%)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중년 남성(24.2%), 30대는 노년 남성(21.5%), 40대는 노년 남성(24.3%), 50대는 중년 여성(28.1%), 60

대 이상은 노년 남성(28.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년이 가장 살기 좋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청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다. 한편, 성별과 연령별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4] 대구에 살기 좋은 연령층

<표 III-2-6> 성별 연령별 대구에 살기 좋은 연령층

(단위 : 명, %)

구분		유/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중년 여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	$\chi^2$
성별	여성	34 (10.8)	28 (8.9)	9 (2.9)	11 (3.5)	48 (15.3)	49 (15.6)	66 (21.0)	69 (22.0)	22.382 **
	남성	24 (8.6)	34 (12.2)	26 (9.4)	14 (5.0)	27 (9.7)	50 (18.0)	62 (22.3)	41 (14.7)	
연령	20대 이하	7 (5.5)	20 (15.6)	15 (11.7)	11 (8.6)	31 (24.2)	10 (7.8)	20 (15.6)	14 (10.9)	134.559 ***
	30대	13 (9.6)	18 (13.3)	15 (11.1)	4 (3.0)	18 (13.3)	18 (13.3)	29 (21.5)	20 (14.8)	
	40대	18 (17.5)	7 (6.8)	4 (3.9)	2 (1.9)	10 (9.7)	17 (16.5)	25 (24.3)	20 (19.4)	
	50대	15 (12.4)	10 (8.3)	-	3 (2.5)	8 (6.6)	34 (28.1)	24 (19.8)	27 (22.3)	
	60대 이상	5 (4.8)	7 (6.7)	1 (1.0)	5 (4.8)	8 (7.6)	20 (19.0)	30 (28.6)	29 (27.6)	
전체		58 (9.8)	62 (10.5)	35 (5.9)	25 (4.2)	75 (12.7)	99 (16.7)	128 (21.6)	110 (18.6)	-

\* p<.05, \*\*p<.01, \*\*\*p<.001

이어서 대구에서 남자 혹은 여자라서 차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여성은 5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21.8%로 여성이 약 2.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40대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51.6%), 50대(51.5%)의 순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1.0%), 60대 이상(26.0%)이었다. 남성의 경우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0대(28.0%)가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0.4%)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성별 연령별 대구에서 남자 혹은 여자라서 차별 받은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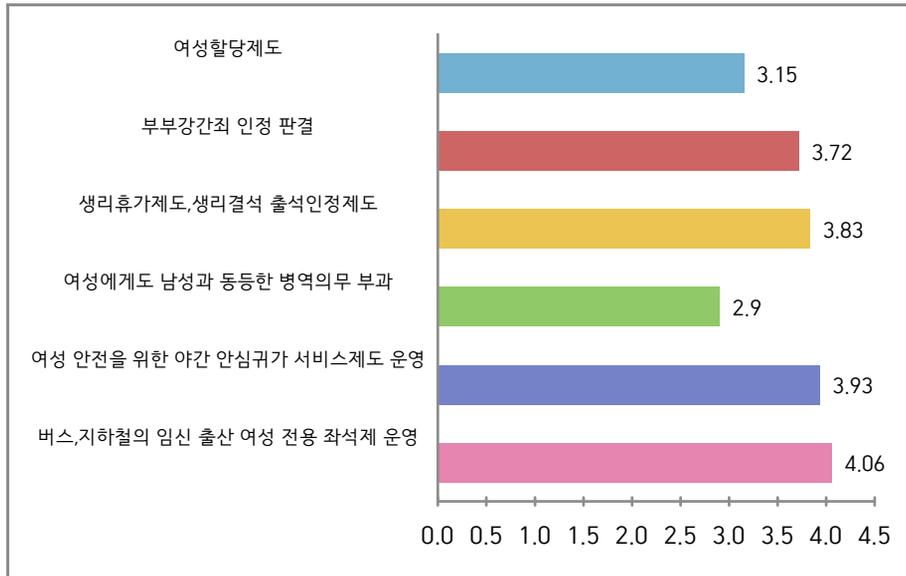
구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성별	여성	68(23.4)	60(20.6)	149(51.2)	14(4.8)	
	남성	135(51.5)	47(17.9)	57(21.8)	23(8.8)	
성별에 따른 연령대	여성	20대 이하	18(31.0)	11(19.0)	26(44.8)	3(5.2)
		30대	10(15.6)	17(26.6)	33(51.6)	4(6.3)
		40대	11(20.8)	9(17.0)	32(60.4)	1(1.9)
		50대	16(24.2)	13(19.7)	34(51.5)	3(4.5)
		60대 이상	13(26.0)	10(20.0)	24(48.0)	3(6.0)
	남성	20대 이하	21(42.0)	12(24.0)	11(22.0)	6(12.0)
		30대	29(49.2)	11(18.6)	13(22.0)	6(10.2)
		40대	24(49.0)	8(16.3)	12(24.5)	5(10.2)
		50대	23(46.0)	11(22.0)	14(28.0)	2(4.0)
		60대 이상	38(70.4)	5(9.3)	7(13.0)	4(7.4)
전체		203(36.7)	107(19.3)	206(37.3)	37(6.7)	

주. 무응답 제외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버스, 지하철의 임신출산여성 전용 좌석제 운영’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성 안전 위한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제도 운영(3.93점)’, ‘생리휴가제도·생리결석 출석인정제도(3.83점)’, ‘부부강간죄 인정 판결(3.72점)’, ‘여성할당제도(3.15점)’,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2.9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여성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와 남성은 ‘여성할당제도’라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의 분석결과에는 ‘버스, 지하철의 임신 출산 여성 전용 좌석제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결과에는 ‘생리휴가제도·생리결석출석인정 제도’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I-2-5]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의 찬반 의견 평균

<표 III-2-8> 성별 연령별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의 찬반 의견 평균

구분	여성할당제도			부부강간죄 인정 판결			생리휴가제도·생리결석 출석인정제도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성 별	여성	3.43	0.92	***	3.97	0.92	***	3.97	0.85	***
	남성	2.85	1.04		3.43	1.05		3.66	0.98	
연 령	20대이하	2.94	1.05	2.742*	3.82	1.06	9.766 ***	3.74	1.04	.391
	30대	3.06	1.08		3.94	0.92		3.8	1.05	
	40대	3.19	0.98		3.92	0.93		3.87	0.89	
	50대	3.33	1.01		3.64	0.99		3.84	0.87	
	60대이상	3.26	0.92		3.22	1.05		3.87	0.74	
전체	3.15	1.02	-	3.72	1.02	-	3.83	0.93	-	
구분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			여성 안전을 위한 야간 인심귀가 서비스제도 운영			버스, 지하철의 임신 출산 여성 전용 좌석제 운영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통계량	
성 별	여성	2.78	1.01	-2.712 **	4.01	0.73	2.372*	4.11	0.77	1.304
	남성	3.04	1.19		3.84	0.93		4.02	0.94	
연 령	20대이하	3.06	1.10	2.170	3.61	0.96	5.010 ***	3.78	1.02	4.219**
	30대	2.99	1.15		3.98	0.80		4.09	0.85	
	40대	2.82	0.95		4.05	0.81		4.09	0.92	
	50대	2.95	1.12		4.01	0.81		4.18	0.76	
	60대이상	2.67	1.15		3.98	0.74		4.18	0.62	
전체	2.90	1.11	-	3.93	0.84	-	4.06	0.85	-	

주. 5점 척도로 구성되어 <3이면 반대, >3이면 찬성으로 계산  
주.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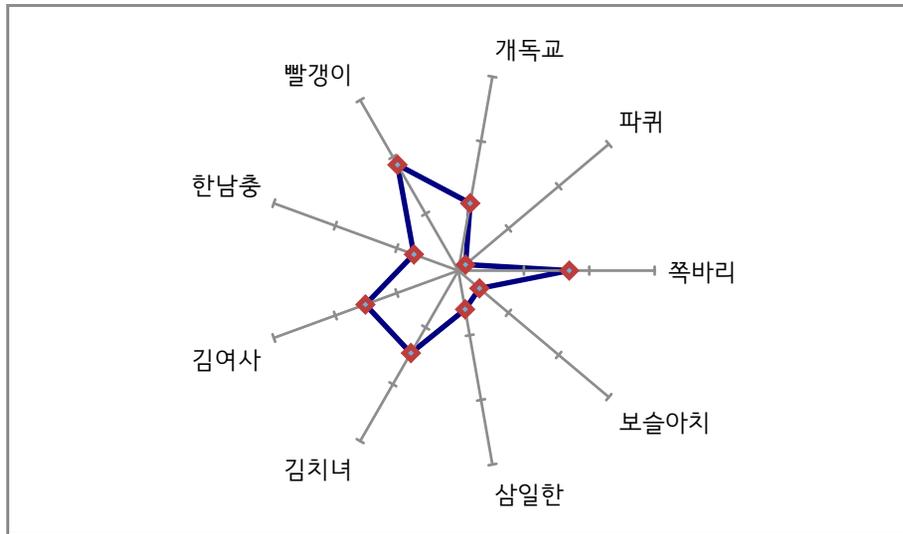
## 나. 혐오표현과 여성혐오문제

### 1) 혐오표현 인지

여성혐오표현의 인지정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여러 혐오단어들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들어본 적 있는 단어로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일컫는 빨갱이(9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다음으로 한국인이 일본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인 쪽바리(84.7%), 운전이 못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 김여

사(75.6%), 대한민국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 김치녀(72.6%), 기독교를 비하하여 부르는 말인 개독교(52.1%), 한국남자를 별레로 비하하는 말인 한남충(36.2%),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줄임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 삼일한(30.0%), 여성의 성기와 벼슬아치의 합성어로, 남성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말인 보슬아치(21.1%), 파키스탄인을 비하하는 말인 파퀴(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혐오표현의 인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남성혐오표현인 한남충과 여성혐오표현인 김여사의 경우 여성의 인지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에 속하는 쪽바리와 파퀴,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인 개독교,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인 빨갱이의 경우 30대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은 주로 인터넷이나 SNS의 노출도가 높은 20대 이하에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 분석결과는 쪽바리, 파퀴, 개독교, 보슬아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은 쪽바리, 개독교, 빨갱이, 한남충, 김여사, 김치녀, 삼일한, 보슬아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혐오표현 인지 여부(‘들어본 적 있다’ 응답)

<표 III-2-9> 성별 연령별 혐오표현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쪽바리	파쿠	개독교	빨갱이	한남총	김여사	김치녀	삼일한	보슬아치
성별	여성	235 (80.8)	13 (4.5)	138 (47.4)	267 (91.8)	107 (37.0)	222 (76.3)	208 (72.5)	83 (28.6)	49 (17.0)
	남성	234 (89.0)	27 (10.3)	150 (57.3)	249 (94.7)	93 (35.4)	197 (74.9)	189 (72.7)	83 (31.6)	68 (25.9)
$\chi^2$		7.182 **	7.782*	6.445*	1.849	1.979	.144	.064	1.472	8.347*
연령	20대 이하	92 (85.2)	8 (7.4)	64 (59.3)	103 (95.4)	76 (70.4)	95 (88.0)	100 (93.5)	52 (48.1)	51 (47.2)
	30대	113 (91.9)	12 (9.8)	84 (68.3)	119 (96.7)	55 (44.7)	109 (88.6)	106 (87.6)	34 (27.6)	41 (33.3)
	40대	94 (91.3)	9 (8.7)	55 (53.4)	99 (96.1)	37 (35.9)	85 (82.5)	77 (74.8)	23 (22.3)	12 (11.8)
	50대	99 (85.3)	9 (7.8)	62 (53.4)	104 (89.7)	21 (18.4)	88 (75.9)	77 (67.0)	26 (22.6)	9 (7.8)
	60대 이상	71 (68.3)	2 (1.9)	23 (22.3)	91 (87.5)	11 (10.6)	42 (40.4)	37 (36.6)	31 (29.8)	4 (3.8)
$\chi^2$		29.955 ***	9.743	55.948 ***	12.159 *	111.276 ***	92.929 ***	107.652 ***	26.933 **	94.386 ***
전체		469 (84.7)	40 (7.2)	288 (52.1)	516 (93.1)	200 (36.2)	419 (75.6)	397 (72.6)	166 (30.0)	117 (21.1)

주, '들어본 적 있다'의 응답률  
주,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보다 구체적으로 혐오표현 유형의 경험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이 3.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출신 지역과 관련된 혐오표현(3.28점),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3.16점),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3.06점),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3.00점),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2.97점)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혐오표현 유형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험이 전체 평균 3.14점으로 여성보다 1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유형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험이 더 높았으나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은 여성의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각 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50대의 경험이 높았으나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은 비교적 온라인상에서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특성에 맞게 온라인 노출이 잦은 20대 이하(3.38점)에게,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은 30대(3.24점),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은 60대 이상(3.37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은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분석결과는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결과는 종교와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과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0> 성별 연령별 혐오표현 유형 경험

구분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2.95	0.89	-.697	3.26	0.85	2.683**	3.01	0.97	-1.117
	남성	3.00	0.98		3.06	0.88		3.11	0.98	
연령	20대이하	2.99	1.03	.278	3.38	0.98	2.593*	3.06	1.13	3.661**
	30대	2.97	0.88		3.20	0.80		3.24	0.94	
	40대	2.92	0.94		3.12	0.88		3.13	0.88	
	50대	3.04	0.94		3.09	0.84		3.08	0.92	
	60대이상	2.94	0.89		3.04	0.81		2.76	0.93	
전체		2.97	0.93	-	3.16	0.87	-	3.06	0.98	-
구분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			출신 지역과 관련된 혐오표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성별	여성	3.02	0.84	.420	3.30	0.90	-.493	3.22	0.93	-1.378
	남성	2.98	0.97		3.34	1.01		3.33	0.97	
연령	20대이하	3.06	1.05	.906	3.27	1.02	.304	3.22	1.09	2.046
	30대	2.96	0.83		3.27	0.93		3.15	0.91	
	40대	3.01	0.92		3.35	0.94		3.18	0.93	
	50대	3.09	0.84		3.36	0.88		3.44	0.87	
	60대이상	2.88	0.87		3.37	1.02		3.38	0.93	
전체		3.00	0.91	-	3.32	0.95	-	3.28	0.95	-

주. 5점 척도로 구성되어 <3이면 경험 낮음, >3이면 경험 높음으로 계산  
 주.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 2) 여성혐오 실태

응답자들에게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심각하지 않다 14.8%, 그저 그렇다 30.1%, 잘 모르겠다 6.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과반수 이상인 60.1%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35.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39.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심각하지 않다는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대 이하가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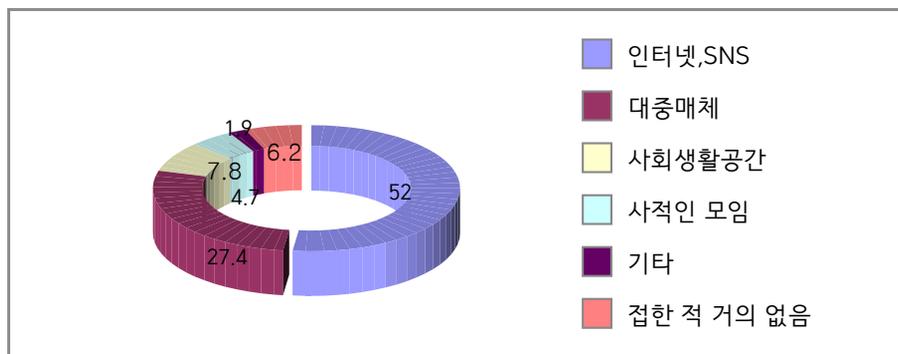
<표 III-2-11>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

(단위 : 명, %)

구분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성별	여성	20(6.9)	84(28.9)	175(60.1)	12(4.1)
	남성	62(23.6)	83(31.6)	93(35.4)	25(9.5)
연령	20대 이하	14(13.0)	33(30.6)	47(43.5)	14(13.0)
	30대	15(12.2)	37(30.1)	64(52.0)	7(5.7)
	40대	17(16.5)	29(28.2)	51(49.5)	6(5.8)
	50대	16(13.8)	31(26.7)	65(56.0)	4(3.4)
	60대 이상	20(19.2)	37(35.6)	41(39.4)	6(5.8)
전체		82(14.8)	167(30.1)	268(48.4)	37(6.7)

여성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은 인터넷·SNS(모바일 포함)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27.4%), 직장·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7.8%), 친구·선후배 등과의 사적인 모임(4.7%)의 순이었으며,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적 거의 없음(6.2%), 기타(1.9%)이었다.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남녀 모두 인터넷·SNS(모바일 포함)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도 40대 이하의 인터넷·SNS(모바일 포함)가 가장 많았으나 50대 이상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I-2-7]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표 III-2-12>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경로

(단위 : 명, %)

구분		인터넷, SNS (모바일포함)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	친구, 선후배 등 사적인 모임	여성혐오 표현을 접한 적 거의 없음	기타
성 별	여성	157(50.8)	93(30.1)	29(9.4)	15(4.9)	12(3.9)	3(1.0)
	남성	143(53.4)	65(24.3)	16(6.0)	12(4.5)	24(9.0)	8(3.0)
연 령	20대이하	89(73.0)	14(11.5)	8(6.6)	5(4.1)	5(4.1)	1(0.8)
	30대	89(70.1)	22(17.3)	11(8.7)	3(2.4)	1(0.8)	1(0.8)
	40대	61(58.1)	27(25.7)	6(5.7)	3(2.9)	5(4.8)	3(2.9)
	50대	43(36.1)	51(42.9)	12(10.1)	1(0.8)	10(8.4)	2(1.7)
	60대이상	18(17.3)	44(42.3)	8(7.7)	15(14.4)	15(14.4)	4(3.8)
전체		300(52.0)	158(27.4)	45(7.8)	27(4.7)	36(6.2)	11(1.9)

주. 복수응답처리 되었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여성혐오표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가 37.3%, 비슷할 것이다 31.9%,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18.5%, 잘 모르겠다 12.3%로 나타났다. 남성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40.1%)가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은 비슷할 것이다(37.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남성이 여성보다 5.3%p 높게 나타났으나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여성이 남성보다 2.0%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2-13>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

구분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성 별	여성	53(19.4)	103(37.7)	95(34.8)	22(8.1)
	남성	43(17.4)	63(25.5)	99(40.1)	42(17.0)
연 령	20대이하	22(22.0)	42(42.0)	15(15.0)	21(21.0)
	30대	29(24.2)	44(36.7)	35(29.2)	12(10.0)
	40대	14(14.0)	24(24.0)	52(52.0)	10(10.0)
	50대	14(13.3)	31(29.5)	49(46.7)	11(10.5)
	60대이상	17(17.9)	25(26.3)	43(45.3)	10(10.5)
전체		96(18.5)	166(31.9)	194(37.3)	64(12.3)

주. 무응답 제외

여성혐오에 대한 의견의 동의정도를 알아본 결과 가장 동의하는 것은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와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다’가 각각 24.2%로 동일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14.0%)’, ‘여성혐오는 실체가 없으며 언론에 의해 과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용어이다(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경우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31.9%)는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가, 60대(29.3%)는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문제이다’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 분석결과는 여성혐오 의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4> 성별 연령별 여성혐오 의견

(단위 :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chi^2$
성별	여성	93(32.4)	20(7.0)	55(19.2)	49(17.1)	70(24.4)	42.634***
	남성	38(14.9)	34(13.3)	95(37.3)	27(10.6)	61(23.9)	
연령	20대 이하	29(27.4)	6(5.7)	32(30.2)	14(13.2)	25(23.6)	38.971**
	30대	25(20.5)	7(5.7)	49(40.2)	19(15.6)	22(18.0)	
	40대	27(26.5)	10(9.8)	29(28.4)	11(10.8)	25(24.5)	
	50대	36(31.9)	13(11.5)	16(14.2)	18(15.9)	30(26.5)	
	60대 이상	14(14.1)	18(18.2)	24(24.2)	14(14.1)	29(29.3)	
전체		131(24.2)	54(10.0)	150(27.7)	76(14.0)	131(24.2)	-

- ①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② 여성혐오는 실체가 없으며 언론에 의해 과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용어이다
- ③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 ④ 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 ⑤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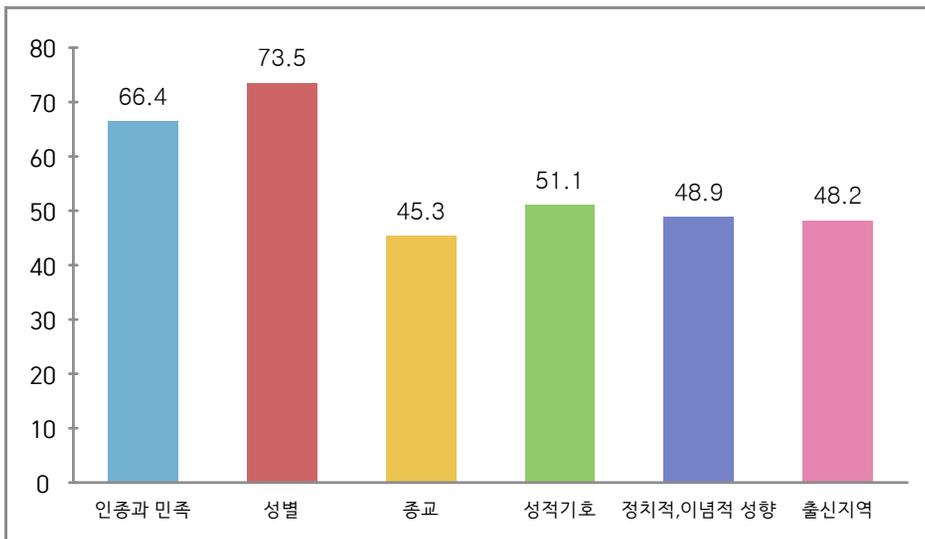
주.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 3) 혐오표현 규제 유형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법조항을 만든다면 규제에 포함되어야 할 유형은 ‘성별’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종과 민족(66.4%)’, ‘성적 기호(51.1%)’, ‘정치적·이념적 성향(48.9%)’, ‘출신지역(48.2%)’, ‘종교(4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규제는 성별과 연령대와 상관없이 포함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81.7%)이 남성(64.5%)보다 17.2%p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가 80.4%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 비해 20.8%p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인종과 민족’, ‘성별’, ‘성적 기호’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던 반면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출신지역’, ‘종교’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약간 모자라게 나타났다.

(단위 : %)



[그림 III-2-8] 혐오 관련 법 제정 시 포함 유형

<표 III-2-15> 성별 연령별 혐오 관련 법 제정 시 포함 유형

(단위 : 명, %)

구분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	출신지역과 관련된 혐오표현
성별	여성	204(70.3)	236(81.7)	134(46.4)	164(56.7)	146(50.5)	140(48.4)
	남성	162(62.1)	167(64.5)	114(44.0)	116(44.8)	122(47.1)	124(47.9)
연령	20대 이하	84(77.8)	86(80.4)	51(47.7)	65(60.7)	56(52.3)	64(59.8)
	30대	92(76.7)	94(79.7)	50(42.4)	66(55.9)	58(49.2)	59(50.0)
	40대	64(62.1)	79(76.7)	52(50.5)	51(49.5)	53(51.5)	50(48.5)
	50대	66(56.9)	82(70.7)	48(41.4)	50(43.1)	48(41.4)	48(41.4)
	60대 이상	60(57.7)	62(59.6)	47(45.2)	48(46.2)	53(51.0)	43(41.3)
전체		366(66.4)	403(73.5)	248(45.3)	280(51.1)	268(48.9)	264(48.2)

주. '포함' 응답비율

주. 무응답 제외

IV

---

결론



## 1. 결론 및 시사점

### 가. 요약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책 수요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의 정책 요구를 수렴하는 것에는 시간과 여건 등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정책 수요자인 대구 청년여성과 대구 시민들의 정책 요구와 더불어 최근 이슈되는 사안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정책의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 과정으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에 거주하는 25세에서 35세의 청년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생활실태와 정책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결혼·출산·동거의 가치관에 대하여 결혼과 동거에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반면 출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에 의해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수저계급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4.0%가 자신을 동수저로 분류하였다.

응답자들의 거주형태는 62.6%가 아파트에서 부모 및 조부모(30.2%)와 거주하고 있었으며 64.0%가 계속 대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36.0%)를 희망한 응답자들은 36.7%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생활형태는 필수생활시간 평균 10시간 29분, 의무생활시간 평균 9시간 30분, 여가생활시간 4시간 1분이었으며, 특히 교제시간과 종교·문화·스포츠 시간은 각각 평균 55분과 21분인데 반해 미디어 이용 시간은 평균 2시간 2분으로 대면적 만남보다는 비대면적 만남에 더 친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 끼니별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침식사 37.4%, 점식식사 92.8%, 저녁식사 93.4%가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가족과 함께 집밥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혼밥의 비율은 평균 28.8%로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100명 중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근로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일하고 있다가 57.2%로, 고용형태는 72.0%가 정규직, 22.4%가 비정규직이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8.5시간으로 정규직 39.9시간, 비정규직 33.8시간으로 정규직이 주당 평균 6.1시간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과 관련하여 대구의 생활환경의 전반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37.4%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환경의 안전 체감정도에서는 생활환경에 대해 두려움(평균 3.59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간접 성폭력 경험은 64.0%에 달했으며, 유형으로는 성희롱(30.7%), 성기노출(20.0%), PC/폰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배포(19.8%) 등의 순이었다. 이어서 데이트폭력의 직·간접 경험은 77.6%로 성폭력에 비해 13.6%p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 유형은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5.7%), 원치 않는 스킨십(15.6%),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직접적인 경험은 16.4%로 유형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4.3%),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3.9%),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12.7%) 등으로 언어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대처방안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9%는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1.4%)하거나 경찰에 신고(3.6%)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대구에 대해서는 40.5%가 보수적인 도시이며, 평등하지 않다(67.0%)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구에 바라는 여성정책은 일·가정양립환경조성(37.7%)이었으며 청년을 위한 정책은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41.2%)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및 배당정책이 필요하다(62.4%)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0~60대의 대구 남녀 시민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는 10점 만점의 6.1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5.56점, 남성은 6.71로 남성이 1.15p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개인의 성평등 수준은 5점 만점의 평균 2.3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된다’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남녀갈등과 차별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녀갈등은 54.2%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7.4%가 대구에도 남녀갈등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연령대는 노년층으로 노년남성(21.6%), 노년여성(18.6%), 중년여성(16.7%), 중년남성(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슈되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버스, 지하철의 임신 출산여성 전용 좌석제 운영(4.06점)’과 ‘여성 안전을 위한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제도 운영(3.93점)’, ‘생리휴가제도, 생리결석 출석인정제도(3.83점)’ 등의 순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남성의 경우 ‘여성할당

제도'에서, 여성의 경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에서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또한 혐오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출신 지역, 성별 등의 순으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험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정부출범으로 인종이나 백인우월주의 문화 등이 비교적 완화되고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관련하여 여성혐오는 절반에 가까운 48.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SNS(모바일 포함)(54.2%)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가 73.0%로 인터넷과 SNS의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경험은 50대 이상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의 24.2%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10명 중 3명(27.7%)이 성별과 무관하게 혐오는 존재하나 은폐되어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24.2%는 여성혐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시사점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청년여성 조사에 대한 시사점은 우선, 청년여성이 계급에 따른 수저계급론을 강하게 인식함에 따라 신계급론에 대한 청년여성의 인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근로소득과 기혼 여성의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여성이 느끼고 있는 대구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험(77.6%)과 성폭력에 대한 경험(64.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으로서 대구에 거주하는 것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여성이 느끼는 도시 이미지가 여성친화적인 이미지 변화를 통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구, 떠나고 싶지 않은 대구를 만드는 것이 대구의 청년여성을 U턴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대구지역 청년여성의 생활 여건을 보면 시간을 보면 가사노동과 관련된 시간은 평균 2시간 29분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을 위한 학습시간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여성 10명 중 3명이 하루에 한끼 이상 혼밥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생활시간의 변화를 통해 청년여성·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대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일자리와 근로환경이 좋지 않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구사회조사에 따르면 인구 유출의 주 연령대는 20대 청년층으로 2005년부터 최근 11년간 순유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유출의 원인으로 34.6% 낮은 임금, 27.7%가 일자리 부족을 들고 있으며, 응답자들의 19.6%는 취업·일자리를 고민함과 동시에 취업·구직(34.3%)을 청년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청년유출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및 고용환경의 개선과 희망 여성 정책으로 일·가정양립환경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로, 본 조사를 통해 청년여성이 대구에 살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에 대한 개선, 일·가정, 문화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등 청년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대구시민 양성평등 의식조사에 대한 시사점은 우선, 대구시민의 성평등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에서 여자라서 차별받는 경우가 5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가 70.1이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 고정 관념이 강하게 나타나 대구지역의 보수성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세대별 성평등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48.4%가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혐오표현은 주로 인터넷과 SNS(모바일 포함)(54.2%)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혐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여성혐오에 이어 남성혐오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스, 지하철의 임신 출산 여성 전용 좌석제의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 안전을 위한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제도’도 확대되

어야 한다. 응답자들은 여성과 관련된 이슈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특히 남성은 ‘여성할당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에 대해 비교적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여 상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년여성의 시대별 키워드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여성의 생각과 대구시민의 성평등 인식과 혐오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청년여성 과 시민의 성평등 인식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본 연구가 더 많은 청년여성에 대한 고민을 연구하고 대구시민의 성평등 의식의 현황을 토 대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혐오에 대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 2. 정책제언

### 가. 청년지원정책

조사결과 대구시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취업으로, 청년들은 높은 급여와 다양한 복지혜택, 안정적인 고용상태,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내 환경 등의 소 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일자리가 다양한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보다 안정된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공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 청년유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인구 유출의 주 연령대가 20대 청년층이며, 최근 11년간 순유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자 2015년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구성, 2017년까지 총 3기의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2015년 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6년 6월 대구시 청년센터를 개소하였다. 나아가 2017년 청년정책과 신설과 17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의 청년유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등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는 평균 19.3%(알고 있다 응답률)로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거, 안전, 일자리 등의 다양한 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 1) 주거와 생활

### (1) 주거와 생활

#### ① 청년문화행복카드

대구시에 계속 거주할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대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64.0%로 25~35세의 청년여성의 100명 중 64명은 대구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떠나려고 하는 36명의 청년여성은 일자리를 찾아(36.7%),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27.8%) 등의 이유로 대구를 떠나고 있다. 한편, 청년여성들이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16.6%가 문화·여가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문화시설(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은 2015년 기준 116개<sup>4)</sup>로 전국의 4.0%에 불과하며, 박물관과 미술관 시설도 2015년 기준 20개<sup>5)</sup>로 전국의 1.9%,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말 기준 547개<sup>6)</sup>로 전국의 2.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문화도시라 불리며, 2017년에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매년 국제오페라축제(DIOF)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대구국제재즈축제(DIJF) 등의 음악관련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렇듯 대구에는 많은 문화여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스스로 경험하는 것은 수입이 없는 학생 혹은 미취업 청년들은 비용의 부담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대구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에서 만 39세 미만의 학생 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차등 금액이 지급된 문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여 대구시의 각종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문화·여가시설 부족의 이유로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야 한다.

4) 대구통계(<http://stat.daegu.go.kr>) 대구기본통계, '7-1-1 문화시설 유형별'(2016)

5) 대구통계(<http://stat.daegu.go.kr>) 대구기본통계, '7-1-2 박물관, 미술관 시설 수'(2016)

6) 대구통계(<http://stat.daegu.go.kr>) 대구기본통계, '7-2-1 체육시설'(2015)

## ② 미취업 청년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대구는 2015년 말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지역가입자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검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만 20세에서 만 39세의 미취업자의 경우 세대주, 의료수급권자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젊은 층으로 인식되는 청년들의 경우 비교적 건강하다고 인식되어지만, 최근에는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스트레스, 과음,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하여 청년에게도 중증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성 질환인 자궁경부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연령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이라면 언제든지 조심해야 하며 가급적 잦은 검사로 인해 발병하더라도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어 발병 후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비교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업 청년들의 가정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차등 금액을 지원해주어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안전

### ① 지역 여성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실태조사 결과 직·간접 성폭력 경험 64.0%, 데이트폭력 경험 77.6%로 경험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청년여성들은 대구를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 및 이들 간의 정례적 소통과 실질적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대구시에는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프로그램,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협의회의 구성원이 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 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형사사법기관, 여성안전정책연구원, 교육청 등의 담당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회가 여성안전을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포럼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안정정책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데이트폭력 홍보 캠페인

조사결과 데이트폭력의 직·간접 경험은 77.6%로 직접적인 경험은 17.2%로 경험유형은 직·간접 경험의 경우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15.7%)이, 직접 경험의 경우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1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대한 청년여성들의 인지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장 경험이 높게 나타난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의 경우 46.8%로 100명 중 53명은 이 유형을 데이트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의 경우 18.8%가 데이트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표현도 47.2%는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 폭력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년여성들에게 나아가 시민들에게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2) 노동과 일자리

### (1) 대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정보공개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취업과 일자리로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정책이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41.2%)이며, 여성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일·가정양립환경 조성(37.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 청년들은 적은 임금과 함께 과도한 업무량, 잦은 초과근무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도 많다. 이렇듯 기업의 근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 가운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지역 기업체들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청년들의 일 선택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지역 기업체들의 사내 복지제도와 직종 및 직급에 대한 평균 근무시간 및 평균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축하여 청년들에게는 정보제공을, 기업체들에게는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련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허위정보

기재 및 제도 유지를 위한 감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2) 취업준비생 청년과 경력단절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여성정책으로는 미취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16.3%)에 대한 요구가 100명 중 16명으로 일·가정양립환경 조성에 이어 2번째로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사 응답자 중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2.4%로 과반수에 가까운 수치로, 일하고 있지 않은 청년여성들 중 과거 일한 적 있으나 지금은 쉬고 있다는 57.5%, 취업준비생이다 17.9%, 일하고 있지 않다 24.5%로 경력단절이 된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다.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취업준비 중인 청년과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체에 대한 이해교육과 더불어 기업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체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에서 이익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며, 직무 경험이 있을지라도 단기 인턴이나 정규채용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인턴의 경험이 있을 뿐이다. 또한 막상 채용이 되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의 특성에 맞게 취업준비생인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분야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직무 교육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업무와 연관된 서류 작성법, 계약 절차, 예산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 나아가 고용인이 누려야 할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인 연차, 육아휴직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대구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업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 교육도 진행하여 기업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직무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나. 양성평등 의식개선

대구광역시의 경우 국가성평등지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성평등 의식 평균은 2.3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구지역의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세대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남자 혹은 여자라서 차별 받은 경험이 여자에게서 상당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대구지역의 보수성이 다시 한 번 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인 여성혐오표현이 인터넷, SNS 등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1) 양성평등 의식과 태도

#### (1) 생애주기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대구가 비교적 양성평등한 도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 5.56점으로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가 남성(6.71점)에 비해 1.15점p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성평등 의식 수준의 전체 평균은 2.30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아 비교적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여성(2.16점)보다 남성(2.45점)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간의 성평등 의식 수준의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아졌다. 게다가 대구에서 여자 혹은 남자라서 차별 받은 경험은 여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생애주기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의 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수적으로 인식되는 대구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치원 때부터 자아가 완성되고 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커갈 대학생까지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대구지역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性)교육 실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더불어 비교적 폐쇄적인 성교육을 받았던 대구지역의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관계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의 필요하다. 청년여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대로 직·간접 성폭력 경험(64.0%)과 직·간접 데이트폭력의 경험이 77.6%로 과반수 이상의 청년여성이 경험하였으며,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험 유형 중 원치 않는 스킨십(15.6%)과 원치 않는 성관계(7.0%)의 경험도 10명 중 1명 정도는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현재의 성교육과 성인이라는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바른 피임법과 더불어 미디어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건강한 성문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성행위는 단지 쾌락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성문화를 즐기지만 하는 젊은층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미혼모·미혼부, 낙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최근 낙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낙태의 문제가 사회규제 대상이 아닌 여성의 문제임이며 그와 동시에 생명 존중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을 교육을 통해 알려주어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 2) (여성)혐오 인식 개선

### (1) 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한 부부 대상의 성별 이해 교육

우리나라의 남녀 갈등에 대해 54.2%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에서도 남녀갈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57.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험(36.6%)도 다른 혐오표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혐오 표현인 김여사가 75.6%, 김치녀 72.6%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여성혐오 표현의 경험이 있었으며, 남성혐오 표현인 한남층에 대해서도 36.2%로 10명 중 4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관계없이 ‘혐오표현은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27.7%로 나타나

성별 혐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이 발생하기 않기 위하여 성별 이해교육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부를 대상으로 성별 이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의 일부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를 위한 교육으로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이나 부부 이해관계증진을 위한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남녀 성별에 대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학적 성(Gender)을 모두 아우르는, 부부관계의 개선이 아닌 모든 세대 부부에게 성별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관계 개선에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닌 성별 상호 이해 프로그램 제공으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부관계 개선 및 남녀 상호 이해로 성별 갈등 완화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대구·경북 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윤리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혐오표현을 자주 접한 경로는 인터넷과 SNS(모바일 포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73.0%와 30대의 70.1%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온라인에 자주 노출되는 2030대가 여성혐오표현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혐오에 대한 무감각해지거나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부재의 문제로 혐오를 혐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의 여성혐오에 대한 여론몰이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체가 없는 가해자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일부 SNS의 페이지는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함께 여성을 혐오하기도 하고 그 곳의 의견을 동의하는 여성은 ‘영웅’시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여성혐오에 대해 응징을 목표로 삼기도 하며, 응징을 이루어 낸 대상 역시 영웅이 된다. 이렇듯 여성혐오에 대한 ‘영웅놀이’로서의 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온라인 윤리교육을 필수강의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상과 SNS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사례를 보여주어 실제 사례를 통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아·허다운.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용현. (2012). 대구경북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김태홍·양인숙·김영택·황정임·배호중. (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 박아란·양정애. (2016).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6년 2권 7호.
- 박영주·성지혜·최세정·김소정. (2015). 대구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1)-성평등지수 분석 및 실태를 중심으로, (재)대구여성가족재단.
- 박영주·윤우석. (2014).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재)대구여성가족재단.
- 안상수·김인순·김금미. (2016). 개정 한국형남성평등의식검사 개발(I) : 검사 타당화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김인순·이정현·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오윤덕·신동훈·서난이. (2016). 2016 전주 청년보고서-전주시 청년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비영리단체 청년들.
- 정하나·김선화. (2015).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 (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홍성수·김정혜·노진석·류민희·이승현·이주영·조승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대구광역시, 사회조사(2015, 2016).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정보시스템, 성격차지수(GGI).  
건강가정지원센터, 2017년 11월 24일 검색, <http://www.familynet.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11월 20일 검색, <http://www.law.go.kr/main.html>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대구광역시조례 제5028호, 2017.10.30., 일부 개정)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5136호, 1995.12.30., 제정)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2017년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  
대구청년센터, 2017년 2월 20일 검색, <http://www.dgyouth.kr>  
대구통계, 2017년 11월 20일 검색, <http://stat.daegu.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11월 20일 검색, <http://www.nhis.or.kr>  
동아일보, (2014년 6월 25일자), 미혼女 10명 중 8명 ‘데이트 폭력’ 경험… 해결 방법은?,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625/64649122/2>  
뉴스웨이, (2017년 11월 3일자), 권영진 대구시장, 청년문제 해결 위해 새 협력 틀 짚다,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110315431888822&md=20171103154321\\_AO](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110315431888822&md=20171103154321_AO)

## 부록 : 여성100년, 시대별로 보는 청년여성 키워드

1920년대부터 2017년 현재까지 1세기에 가까운 시기별 청년여성의 주요 이슈를 포털 뉴스 라이브러리 기사 검색을 통해 살펴보았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1940년대 해방과 1950년대 한국전쟁의 시기를 거쳐 1960년대까지 청년여성과 관련하여 언론에 등장한 키워드는 독립, 해방, 농촌계몽운동, 노동운동, 여성해방, 신여성, 여권신장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1930년대부터는 여성주의 운동이 등장하면서 구시대의 여성상을 타파하려는 여성해방, 여권신장 운동이 계몽운동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후 국제적 정세를 반영하면서 부녀국과 여자경찰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1949년 『축첩방지법』 제정 등으로 일부일처제에 대한 운동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관련 공무원 추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미혼여성에게는 무너지는 성도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조관념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요구가 강조되었다.

1950년대는 전쟁 전후 시기로 율락여성, 자유여성, 여성단체 결성, 상이군경과의 결혼, 연애=결혼, 정조=결혼, 한국여성의 급증하는 국제결혼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직업으로 타이피스트, 양재·편물, 전화교환수, 미용 등이 각광받는 직업기술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 실업문제 해소와 외화획득을 위한 파독간호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신직업군으로 등장하였다.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여성천대 규탄 등 남존여비 타파, 여성호주제 인정, 간통죄 쌍벌죄 적용 여성권리에 대한 강조와 함께 여성에게 불문율인 차별대우, 결혼과 권고사직, 여성 저임금 등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여성 이농증가, 경공업 여성 취업 급증, 여차장, 식모학대, 식모 범죄 등이 주로 검색되었다.

1970년대는 직업, 여성 의식화 교육, 여권신장, 대학의 페미니즘 강좌 개설 등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이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20대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혼인과 혼전임신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이 있는 여성은 주로 연애결혼을 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 중매결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인신매매, 자유연애와 자유부인, 춤바람 등이 사회적으로 등장하였다.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치맛바람과 함께 봄철 여성 가출 급증, 산아제한

과 낙태 등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여성고용차별, 여성 직업 개발 등이 주요한 키워드였다. 특히,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직장여성, 여성고용차별을 위한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밖에 안전과 관련 성폭력, 성범죄와 미혼모 등이 검색되었다.

1990년대에는 여성학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90년 계명대학교에 처음으로 여성학 대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과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다양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 밖에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 성폭력 특별법 제정 등 여성 인권이 강조되면서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전국적으로 개소되었다. 특히, 제4차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시작으로 여성관련 제도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면서 청년여성은 상대적으로 취업난을 겪게 되었다. 당시 결혼은 했지만, 기혼여성을 해고하려는 회사 방침에 처녀 행세를 하는 “IMF처녀”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는 일자리와 양성평등, 성폭행, 취직, 성형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실업의 비상구로 학습지교사 취업 등이 나타났다. 2003년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프로그램이 40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여성은 여전히 “삼태백”, “88만원세대”, “3포세대”를 넘어 “5포, 7포 세대(N포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도시여성과 농촌층각의 결혼에서 외국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2010년부터 2017년 현재 여전히 청년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는 일자리와 창업, 실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스펙휴학이 급증하였다. 여전히 청년여성에 대한 주요 키워드로 성범죄와 주거침입이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청년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이 주요 이슈로 함께 제기되었다. 게다가 2016년 강남역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에 대한 말하기, 검은시위(낙태폐지요구), 깔창생리대, 지여인(취업시장 신조어로 지방대 여자 인문대생 취업하기 힘든 조건 3가지) 등이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표 I -3-1> 키워드로 보는 시대별 청년여성 이슈

시기	키워드
일제강점기와 해방 1940년대	신여성, 구시대여성 타파, 여성해방, 농촌계몽운동, 모던걸, 단발·파마=신여성
한국전쟁과 1950년대	댄스홀, 정조관념 강화, 정조=결혼, 상이군경과 결혼, 한국여성 국제결혼 급증, 타이피스트, 전화교환수 등 여성 직업 등장
베이비부머시대 1960년대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 탄생, 여성 이농 증가, 파독간호사, 결혼과 권고사직, 여차장, 시간제 식모(1966)도입
경제성장시기 1970년대	최초 여성학강좌 개설(1979년), 미니스커트, 자유연애, 치맛바람, 30대 남편의 집안일 돕기, 산아제한과 낙태수술 범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1980년대	직장여성 대한 근로조건 개선 노력, 성폭력 등 성범죄 급증, 신부대학 수강 붐, 20대여성 대상 가족계획, 증가하는 20대 이혼
지식정보사회와 1990년대	성희롱 사건 공론화, 성폭력특별법 제정, 최초 여성학대학원 개원(1990년), 도시여성·농촌청년 만남
밀레니엄 2000년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취직(취직+결혼), N포세대(3포, 5포 7포)
스마트혁명과 2010년~현재	스펙휴학, 여성혐오, 지여인(지방대학교·여학생·인문대), 독박육아, 검은 시위

기준 : 2017.02.28.

자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 부록 : 조사 설문지 >

대구 청년여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대구광역시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대구광역시의 여성·가족의 컨트롤타워로 대구 여성가족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년여성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구 청년여성의 인식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대구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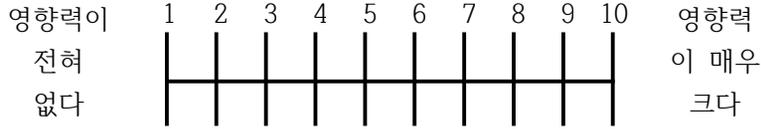
2017년 2월

연구책임자 :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연구원 정희경

조사 기관 : IDINC U



8. 귀하께서는 사회적 성공에 수저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저론 :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로, 크게 금수저와 흙수저로 분류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일자리**

9. 귀하께서는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9-1번으로
- ② 취업준비생이다
- ③ 과거 일한 적 있으나 지금은 쉬고 있다
- ④ 하고 있지 않다
- ⑤ 기타( )

9-1. 귀하께서 현재 일하고 계시다면, 주당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주당 ( )시간

9-2. 귀하께서 현재 일하고 계시다면, 고용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③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 ④ 기타( )

9-3. 귀하께서 현재 일하고 계시다면,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 )만원

10. 귀하께서 향후 희망하는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 )만원

11. 최근 1년 이내에 귀하께서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 있다면, 경험하신 업종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음식점   | ② 패스트푸드    | ③ 주점·호프 |
| ④ PC방   | ⑤ 편의점      | ⑥ 카페    |
| ⑦ 레스토랑  | ⑧ 패밀리 레스토랑 | ⑨ 고객상담  |
| ⑩ 베이커리  | ⑪ 사무보조     | ⑫ 백화점   |
| ⑬ 회계·총무 | ⑭ 과외       | ⑮ 기타()  |
| ⑯ 해당 없음 |            |         |

12. 귀하께서는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없다  | ② 없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많은 편이다 | ⑤ 매우 많다  |        |

13. 귀하께서는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
| ① 학점 및 토익점수     | ② 인맥      | ③ 외모   |
| ④ 출신지 및 출신학교    | ⑤ 시험정보    | ⑥ 자격증  |
| ⑦ 자원봉사경력        | ⑧ 교내활동경력  |        |
| ⑨ 부모의 배경 및 가정환경 | ⑩ 관련분야 경력 | ⑪ 기타() |

14. 귀하께서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사무직(경리·사무·마케팅 등)      | ② 서비스직(매장관리·판매 등)  |
| ③ 전문직(번역·통역·경영컨설팅 등)    | ④ 뷰티·관광·공연 등 생활서비스 |
| ⑤ 강사·교사·과외(보습·학원·외국어 등) | ⑥ 영업·TM            |
| ⑦ 건설·노무                 | ⑧ 공무원·공사공단·공기업     |
| ⑨ 실버·사회복지·요양 등 공공·특수    | ⑩ 직업군인             |
| ⑪ 기타 (     )            |                    |

사회전반

15. 귀하께서 최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취업·일자리      ② 진학 및 진로      ③ 연애
- ④ 결혼              ⑤ 출산                ⑥ 자녀교육
- ⑦ 주거(집)         ⑧ 채무(빚)           ⑨ 인간관계
- ⑩ 기타(             )

16.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해당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1) 청년 Job-Go 프로젝트				
(2) 대구청년주간				
(3) 청년 대구 힙합페스티벌				
(4) 소셜픽션 청년대구				
(5) 청년정책기자단				
(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ON'				
(7) 대구시 청년위원회				
(8) 대구청년센터				

17. 귀하께서는 대구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계속 거주하고 싶다
- ② 여건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 ☎ 17-1번으로

17-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②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 ③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④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 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⑥ 가족 및 주변의 간섭이 심해서
- ⑦ 기타(                                    )





25. 다음은 대구시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1)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2)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3)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4)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다니기 무섭다					
(5)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생활·건강**

26.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하루 평균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 시간을 시, 분으로 기록해주십시오.

항목		하루 24시간	
(1) 필수생활시간	수면	시간	분
	식사 및 간식	시간	분
	기타 개인유지(샤워, 세면 등)	시간	분
(2) 의무생활시간	일(수입노동)	시간	분
	가사노동	시간	분
	학습	시간	분
	이동	시간	분
(3) 여가생활시간	교제(이성 친구 및 동성 친구 등)	시간	분
	미디어 이용(핸드폰 등)	시간	분
	종교·문화·스포츠	시간	분
	기타 여가활동	시간	분

27. 귀하께서는 주로 끼니는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각각 ○표 해주십시오.

	유무	대상	유형
아침	먹음 / 먹지 않음	혼자 / 가족 / 친구 / 동료 / 기타( )	집밥 / 편의점 / 식당 / 패스트푸드 / 분식 / 기타( )
점심	먹음 / 먹지 않음	혼자 / 가족 / 친구 / 동료 / 기타( )	집밥 / 편의점 / 식당 / 패스트푸드 / 분식 / 기타( )
저녁	먹음 / 먹지 않음	혼자 / 가족 / 친구 / 동료 / 기타( )	집밥 / 편의점 / 식당 / 패스트푸드 / 분식 / 기타( )

28. 최근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체중조절(다이어트)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모두 √표 해주십시오.

- ① 운동                      ② 식이요법                      ③ 체중조절보조제  
 ④ 병원(한의원 등)      ⑤ 단식원                      ⑥ 지방흡입 등 시술  
 ⑦ 전문샵                      ⑧ 기타( )                      ⑨ 체중조절 경험 없음

29. 귀하께서 체중조절(다이어트)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① 건강을 위하여      ② 결혼                      ③ 이성교제  
 ④ 취업                      ⑤ 개인의 만족                      ⑥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⑦ 주변 사람의 권유      ⑧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대구 청년여성 정책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대구광역시의 여성·가족의 컨트롤타워로 대구 여성가족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차로 진행한 대구 청년 실태 조사에 이어 대구 청년여성의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연구책임자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정희경

조사 기관 : IDINC U



6. 귀하는 대구시의 청년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어떠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 ① 취업·구직                      ② 주거                      ③ 건강(정신적 건강 포함)
- ④ 연애·결혼                      ⑤ 인간관계                      ⑥ 임신·출산
- ⑦ 자녀 보육·교육                      ⑧ 기타(\_\_\_\_\_)

7. 귀하는 대구의 청년유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다소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⑥ 잘 모르겠다

8. 귀하는 대구의 청년유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 ① 일자리 부족                      ② 낮은 임금                      ③ 열악한 근로환경
- ④ 상급학교로의 진학                      ⑤ 또래친구·배우자 부족                      ⑥ 가족 및 주변의 간섭
- ⑦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환경                      ⑧ 주거시설부족
- ⑨ 보육·교육시설 부족                      ⑩ 문화·여가시설 부족                      ⑪ 기타(\_\_\_\_\_)

9. 귀하는 대구의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 ①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개선                      ② 지역대학 활성화
- ③ 인턴십 기회 제공                      ④ 성별임금격차 해소
- ⑤ 경력단절 예방                      ⑥ 일가정양립 지원
- ⑦ 생계비 지원                      ⑧ 주거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⑨ 보육환경 개선                      ⑩ 문화·여가시설 확충
- ⑪ 범죄로부터 안전사회 구현                      ⑫ 기타(\_\_\_\_\_)

10. 현재 타시도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 및 배당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다소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 서울(청년수당)과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성남시(청년배당)에서 해당 지역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폭력·안전 부문**

11. 다음 중 귀하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표 해주십시오.

- ①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②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③ 강간 미수  
④ 강간  
⑤ 온라인(PC/폰)을 통한 음란물 배포  
⑥ 성희롱  
⑦ 몰래 카메라  
⑧ 스토킹  
⑨ 성기노출  
⑩ 기타(\_\_\_\_\_)  
⑪ 경험 없음

12. 귀하가 생각하는 데이트폭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에 모두 V표 해주십시오.

- ① 고성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
- ② 혼자 큰 소리로 하는 욕설 등
- ③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욕설
- ④ 갈취(금전 및 물품 등)
- ⑤ 협박 및 위협 또는 자해(직접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주는 행위)
- ⑥ 기물파손(물건던지기, 문이나 벽 차기 등)
- ⑦ 온·오프라인에서의 사생활 폭로
- ⑧ 납치 및 감금
- ⑨ 스토킹
- ⑩ 몰래카메라
- ⑪ 신체폭력(상처를 입히는 행위)
- ⑫ 원치 않는 스킨십
- ⑬ 원치 않는 성관계(콘돔 없는 성관계 등)
- ⑭ 기타(\_\_\_\_\_)

13. 귀하는 데이트폭력을 직접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13-1번으로) ② 아니오

13-1. 데이트폭력의 상황에서 귀하는 주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유지                      ② 창피해서 그냥 참음
- ③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함                ④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함
- 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⑥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함
- ⑦ 경찰에 신고함                                        ⑧ 기타(\_\_\_\_\_)

14. 귀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② 단순 차정(차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
- ③ 가해자 처벌 강화                                      ④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
- ⑤ 기타(\_\_\_\_\_)

15. 다음은 대구시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 봐 무섭다					
(2)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봐 무섭다					
(3)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행을 당할까봐 무섭다					
(4)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렵다					
(5)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6)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					
(7)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8)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은 업무계획과 추진력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5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여성은 굳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여자가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녀양육은 부인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성이 잘되는 길은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Q4. 귀하는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 Q5. 귀하는 대구에 남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 Q6. 귀하는 대구에서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 Q7. 귀하는 대구가 양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II

혐오 부문

Q8. 다음은 **혐오표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표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1 쪽바리 (한국인이 일본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비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파퀴 (파키스탄인을 비하하는 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개독교 (기독교를 비하하여 부르는 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속되기 이르는 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한남충 (한국남자를 벌레로 비하하는 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김여사 (운전을 못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김치녀 (대한민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삼일한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줄임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보슬아치 (여성의 성기와 벼슬아치의 합성어로, 남성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는 여성들을 의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Q9. 다음은 **혐오표현의 경험**을 묻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들어본 적 있는 혐오의 종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그렇다	자주 들어본 적이 있다	항상 듣고 있다
1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2 성별과 관련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3 종교와 관련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4 성적 기호와 관련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5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6 출신 지역과 관련된 혐오표현	①	②	③	④	⑤

Q10. 귀하는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여성혐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⑥ 잘 모르겠다

Q11. 귀하가 여성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SNS(모바일 포함)                      ②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③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                      ④ 친구, 선후배 등과의 사적인 모임  
 ⑤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적 거의 없음                      ⑥ 기타(                                      )

Q12. 다음의 의견에 대해 귀하가 가장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여성혐오는 실제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성차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② 여성혐오는 실체가 없으며 언론에 의해 과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용어이다  
 ③ 여성혐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혐오도 존재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④ 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⑤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Q13. 귀하께서는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그저 그렇다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b>1 여성할당제도</b> (공무원 및 기업의 관리직, 국공립대 여교수,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b>2 부부강간죄 인정 판결</b> (부부 간에도 상대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①	②	③	④	⑤
<b>3 생리휴가제도·생리결석 출석인정제도</b> (월 1일 생리로 인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①	②	③	④	⑤
<b>4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b>	①	②	③	④	⑤
<b>5 여성 안전 위한 야간 안심귀가 서비스제도 운영</b>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그저 그렇다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6 버스, 지하철의 임신출산여성 전용 좌석제 운영	①	②	③	④	⑤

Q14. 귀하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앞으로 줄어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Q15. 귀하는 '혐오표현금지법',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조항을 만든다면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포함	불포함	항 목	포함	불포함
1 인종과 민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성적 기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성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정치적·이념적 성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종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출신지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Ⅲ

### 일반적 특성

Q1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16-1번으로)

Q16-1. 귀하는 군대를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 ① 입대 전            ② 현역            ③ (특례)보충역, 사회복무요원            ④ 면제

Q1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Q18.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Q19.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천주교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기타(            )

Q20.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휴·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휴·재학    ⑥ 대학원 졸업 이상

Q21.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생    ② 취업준비생·무직    ③ 전업주부  
④ 관리자·전문가    ⑤ 사무직 종사자    ⑥ 서비스·판매종사자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단순기능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⑫ 기타 (                    )

Q22.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떠합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 ~ 200만원    ③ 201 ~ 300만원  
④ 301 ~ 400만원    ⑤ 401 ~ 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⑦ 해당사항 없음

☺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면접원 이름		면접일	

기본과제 2017-12

**대구여성정책 풍향계 : 대구청년여성 실태와 시민 양성평등 의식 연구**

---

2017년 11월 29일 인쇄

2017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정 일 선

발행처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대구콘서트하우스) 1층

TEL. 053)219-9970 FAX. 053)219-9979

인쇄처 : 한솔기획인쇄

TEL. 053)422-1828 FAX. 053)423-1828

IS B N : 978-89-98031-67-1 23330

<비매품>

---

이 보고서의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